

雲門

불기 2555년

여름호

통권 제117호

雲門僧伽大學





불기 2555년 여름호 통권 제117호

雲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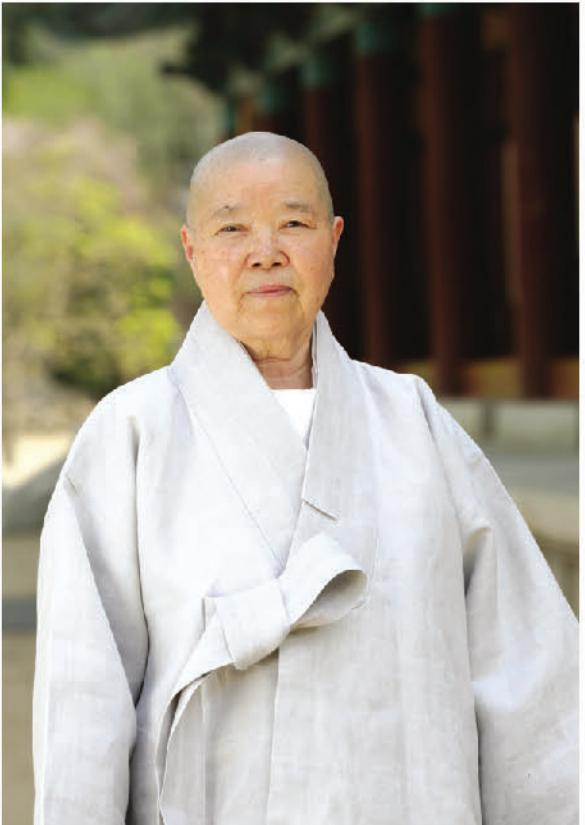


부지런히 노력하며
뜻이 끊임없이 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노력하기
을 망설이 떨어지며
능히 둘을 뚫느니라

ପ୍ରାଣ ପାଦ ପରମା
ଶାନ୍ତି କାନ୍ତି କାନ୍ତି

얼굴이 평온한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心不妄取過去法 亦不貪着未來事
不於現在有所住 了達三世悉空寂

마음을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또한 미래의 일에도 탐착하지 말며
현재의 일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으리라

봄인가 싶더니 만물이 무성해지는 여름입니다. 계절과 같이 우리 인생도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만물과 함께 흐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위의 계송은 화엄경의 한 구절로써 과거와 미래는 물론
이고 현재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비로소 불교 수행의 궁극점인 진정한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생활은 집착이 기본 되고 삼독심을 줄기로 삼아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자신
과 가족 혹은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명예와 지위, 재산, 건강 등의 문제로 해서 한번은 기쁘다가
곧바로 슬픔으로 바뀌고, 한때는 영예롭다가 얼마 후 실망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생의
굴레이며 끊이지 않는 반복입니다. 이러한 놀음에 휩쓸려 공적함을 깨달을 때와는 점점 멀어져 가
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계실 때 한 외도가 와서 물었습니다.

“사문이여 그대는 기쁘십니까?”
“아닙니다.”
“사문이여 그대는 슬프십니까?”
“아닙니다.”
“사문이여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따라오고, 슬픔은 기뻐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니, 그 모두를 아는 나
는 불만족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대화에서 슬픔과 기쁨의 실상을 안다면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근본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지는 오직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에 머물지 않고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현재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상생활은 편해졌지만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않습니다. 만물이 항상하지 않음을 깨달아 두 언덕을 함께 벼릴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가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 한 비구에게 수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행이란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고, 먹는 양을 조절하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워성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입니다. 하루는 천신이 와서는 물었습니다.

“수행자는 하루에 한 끼만을 먹는데도 어떻게 얼굴빛이 그렇게 평온합니까?”
“나는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열망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에 충
실히하기 때문에 얼굴이 평온하다. 미래를 열망하고, 과거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낫에 질린 푸른
갈대처럼 그렇게 시든다네…….”

얼굴이 평온한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평온한 얼굴이 되지 않으며 많이 가졌다
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유로운 사람만이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

『능엄경』에 나타난 마음의 논증 분석Ⅱ

명법 / 운문승가대학 강사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능엄경』의 특징
- III. 마음의 논증
 - 1) 『능엄경』의 서술 방식
 - 2) 七處徵心章의 분석
 - 1. 첫 번째 주장
 - 마음이 몸 안에 있다(在內).
 - 2. 두 번째 주장
 - 마음이 몸 밖에 있다(在外).
 - 3. 세 번째 주장
 - 마음이 根 속에 있다.
 - 4. 네 번째 주장
 - 밖음을 볼 때는 밖을 보는 것이고
어둠을 볼 때는 안을 보는 것이다.
 - 5. 다섯 번째 주장
 - 합하는 데 따라 마음이 있다.
 - 6. 여섯 번째 주장
 - 마음이 중간에 있다.
 - 7. 일곱 번째 주장
 -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 IV. 마음에 대한 서양철학의 몇 가지 이론
 - V. 맷음말

1. 첫 번째 주장 - 마음이 몸 안에 있다(在內).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모든 세상의 열 가지 다른 생명체가 모두 식심을 몸속에 있다고 하니

여래의 청령화같은 눈을 보더라도 부처님의 얼굴에 있으며 또 제가 지금이 浮根四塵을 보리라도 제 얼굴에 있으니 이처럼 식심은 진실로 몸속에 있습니다.”

阿難이 白佛言호대, “世尊하一切世間의 十種異生이 同將識心하야 居在身內하나니 繼觀如來의 青蓮華眼하야도 亦在佛面하시며 我今에 観此浮根四塵하야도 認在我面하나 如是하야 識心은 實居身內하나이다.”

無色類와 無想類를 제외한 모든 중생은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我空의 이치를 모르고 육신에 묶여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1 · 1. 비유를 들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여래의 강당에 앉아 기타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느냐?” “세존이시여, 이 대중작정장은 좁고 깊원에 있고 지금 기타림은 강당 밖에 있습니다.” “아난아 네가 지금 강당 안에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강당에서 먼저 여래를 보고 다음으로 대중을 보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 비로소 林園을 볼니다.” “아난아 네가 林園을 볼 때 무엇 때문에 볼 수 있느냐?” “세존이시여 이 대강당이 물과 창이 열렸으므로 내가 강당 안에서 멀리 볼 수 있습니다.”

佛告阿難하사대 “汝今에 現坐如來講堂하야 繼觀陀林하나니 今何所在오.” “世尊하 此大重閣清淨講堂은 在給孤園하고 今祇陀林은 實在堂外하나이다.” “阿難아汝今堂中에 先何所見고” “世尊하 我在堂中하야 先見如來하고 次觀大衆하고 如是外望하야 方瞻林園하노이다.” “阿難아汝瞻林園호대 因何有見고” “世尊하 此大講堂戶牖開豁할새 故我在堂하야 得遠瞻見하노이다.”

1 · 2. 아난의 명제에 대한 반례(在내를 포함)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것처럼 몸이 강당에 있고 물과 창문이 열려 있어 멀리 입원을 본다. 또 어떤 중생이 이 강당에서 여래를 보지 못하고 강당 밖을 보는가?” 아난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강당에서 여래를 보지 못하고 林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

니다.” “아닌아 이와 같이 너의 마음이 일체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 만약 너의 현전에 분명히 아는 마음이 실제로 몸속에 있다면 이 때 먼저 몸속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중생이 먼저 몸속을 보고 나중에 외물을 보는가? 심장, 간장, 비장, 위장을 볼 수 없더라도 손톱이 생기고 머리가 자라며 근육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은 창으로 분명 할 것인데 어떻게 알지 못하겠는가? 마음이 안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밖을 알겠는가?”

佛告阿難하사대 “如汝所言하야 身在講堂이어 늘 戶牖開豁할새 遠瞻林園하나니 亦有衆生이 在此堂中하야 不見如來하고 사 見堂外者야.” 阿難이 答言호대, “世尊하 在堂하야사 不見如來하고 能見林泉호미 無有是處나이다.” “阿難아汝亦如是하야汝之心靈이 一切를 明了 어니와 若汝現前所明了心이 實在身內인면 爾時에 先舍了知內身하리니 頗有衆生이 先見身中하고 後觀外物가. 繼不能見心肝脾胃하나 爪生髮長하며 筋轉脈搖는 誠合明了 어늘 如何不知오. 心不知內인면 云何知外리요.

강당 안에 있을 때 먼저 안을 보고 나중에 밖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먼저 몸속을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깊은 곳(臍臟)은 보지 못할지라도 가까이 손톱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힘줄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은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제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옳지 않다.

1 · 3. 첫 번째 주장(在내)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네가 알이치려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말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是故로 應知하라 汝言覺了能知之心이 住在身內
라함이 無有是處나라.”

2. 두 번째 주장 - 마음이 몸 밖에 있다(在外).

아난이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사회었다. “제가 여래의 이와 같은 법음을 듣고 제 마음이 실제 몸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阿難이稽首하시와 而白佛言호대, “我聞如來의 如是法音하고 悟知我心이 實居身外하나이다.”

2 · 1.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논증 : 등불의 비유

왜냐하면 마치 등불을 방 안에서 켜면 이 등이 먼저 방 안을 비추고 그 방문에서부터 끝까지 미치는 것처럼 일제 중생이 몸속을 보지 못하고 몸 밖만 본다는 것은 또한 등불이 방 밖에서 방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뜻은 분명히 어울리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所以者何오 番如燈光이 然於室中하면 是燈이 必能先照室內하고 從其室門하야 後及庭際되니 一切衆生이 不見身中하고 獨見身外호미 亦如燈光이 居在室外하야 不能照室하나是義必明하야 將無所惑하야 同佛了義하니 得無妄耶잇가.”

첫 번째 주장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반대로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2 · 2. 아난의 주장에 대한 부처님의 논파

2 · 2 · 1. 질문

“모든 비구가 조공 전 너를 따라 실리열성에서 단식(음식)을 구걸하고 기타림으로 돌아와서, 나는 공양을 다 먹었다. 너는 비구들을 보아와, 한 사람이 밥을 먹으면 모든 사람이 배부른가?”

“是諸比丘가 造來에 從我하야 室羅篋城에 循乞搏食하야 歸祇陀林하니 我已宿齋이니와 汝觀比丘하라 一人食時에 謙人飽不아.”

2 · 2 · 2. 대답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모든 비구가 비록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몸과 몸속은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不也나이다 世尊하 何以故으 是諸比丘가 雖阿羅漢이나 繼命不同하니 云何一人이 能舍衆飽 하리오.”

2 · 2 · 3. 결론

“만약 너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실제로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밖이 되어 서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알 수 없을 것이며 알아차림이 몸에 있다면 마음이 알 수 없을 것이다.”

“若汝에 覺了知見之心이 實在身外인면 身心相外하야 自不相幹이라 則心所知를 身不能覺하여 覺在身際인면 心不能知하리라.”

‘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도 배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른 개체가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그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다른 개체가 된다. 아라한이라도 개체가 다르면 몸과 목숨은 각각이므로 서로 무관한 것과 같이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개체이므로 서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몸이 그 마음과 관련된다고 할 수 없다.

2·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

“내가 지금 네게 도라면 수를 보여 주니 너의 눈이 볼 때 마음이 분별되는가?” 아난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 시여.”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서로 있다면 어떻게 밖에 있는가?”

“我今에 示汝兜羅錦手하노니 汝眼見時에 心分別不아.” 阿難이 答言호대, “如是하나이다 世尊하” 佛告阿難 하사대, “若相知者인면 云何在外리오.”

아난의 주장처럼 몸과 마음이 다른 것이라면 눈이 보는 것과 마음이 아는 것은 무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난이 눈으로 부처님의 손을 볼 때 마음이 분별하여 알고 있으므로 마음과 몸은 서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부정된다. 두 번째 주장은 심신이원론인데,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실체이므로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4. 결론 - 마음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말한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아야만 한다.”

“是故應知하라 汝言覺了能知之心이 住住身外는 無有是處니라.”

3. 세 번째 주장 - 마음이 根 속에 있다.

3·1. 두 번째 주장의 오류를 깨달음

아난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을 볼 수 없으므로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몸과 마음이 서로 알지 만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한 곳에 있는 줄 알겠습니다.”

阿難이 白佛言.호대, “世尊하 如佛所言하사 不見內故로 不居身內하고 身心相知하야 不相離故로 不在身外하니 我今思惟호니 知在一處니다.”

3·2. 아난의 주장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난이 말했다.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안을 알지 못하지만 뒤를 볼 수 있으니 제 생각으로는 根 속에 잠복해 있습니다.”

佛言하사대, “處今何在오” 阿難言호대, “此了知之心이 既不知內하고 而能見外하나니 如我思忖한 潛伏根裏나이다.

3·3. 주장에 대한 논증 : 유리의 비유

마치 어떤 사람이 사발형의 유리를 그의 두 눈에 맞춘 것과 같이 어떤 사물과 험해졌지만 장애되지 않고 저 곳이 봄에 따라 분별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마음이 안을 볼 수 없는 것은 온에 있기 때문이며 뒤를 분명하게 보지 만 장애가 없는 것은 온 안에 장복했기 때문입니다.”

猶如有人이 取琉璃椀하야 合其兩眼인 데하야 雖有物合하야도 而不留碍하야 彼根이 隨見하야 隨卽分別하나니 然이니 覺了能知之心이 不見內者는 為在根故로 分明顯外호대 無障礙者는 潛伏根內故니이다.”

이 주장은 앞의 주장1, 2의 한계, 즉 몸속을 보지 못

하는 문제(주장1과 모순)와, 보는 것을 따라서 마음이 상용하여 알고 있다(주장2와 모순)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난은 안경을 쓰고 볼 때 안경이 눈이 보는 것을 장애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마음이 눈 안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뒤를 보는 데에는 아무 장애가 없다고 주장한다.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근본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뒤만 볼 수 있다.

3·4. 아난의 주장에 대한 부처님의 반론

3·4·1. 비유 : 유리를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셨다. “네가 말한 것처럼 온 안에 잠복한 것이 유리와 같다면 그 사람이 유리로 눈을 덮는다면 산하를 보면서 유리를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유리로 눈을 덮으면 실제로 유리를 볼 수 있습니다.”

佛告阿難하사대, “如汝所言하야 潛根內者가 猶如琉璃인 웬 彼인이 當以琉璃로 羅眼할새 當見山河하야 見琉璃아” “如是니이다 世尊하 是人이 當以琉璃로 羅眼할새 實見琉璃니이다.”

3·4·1·1. 비유의 부적합함을 논파함

부처님이 아난에게 일렀다. “네 마음이 만약 유리가 합한 것과 같다면 산하를 볼 때 어떻게 눈을 보지 못하는가?”

佛告阿難하사대, “汝心이 若同琉璃舍者인면 當見山河하야 何不見眼고.”

아난이 든 비유를 사용하여 아난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마음이 눈 속에 있는 것이 안경을 쓴 것과 같다는 아난의 주장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안경을 쓴 경우 눈은 안경을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눈을 볼 수 없으므로 아난의 비유는 적절하지 못하다.(내용과 비유의 모순)

3·4·2. 법 : 눈은 볼 수 있는가 / 없는가?

만약 눈을 본다면 눈은 곧 경계와 같으므로 ‘따릉다’는 것 이 성립되지 않는다.

若見眼者印然 眼即同境하야 不得成隨하리며

눈을 볼 수 있다면 눈은 인식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상은 인식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본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눈이 보는 것에 상응하여 마음이 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만약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온 안에 잠복해 있는 것이 유리가 합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若不能見인면 云何說言호대 此了知心이潛在根內함이 如琉璃舍이리오.

만약 눈을 볼 수 없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비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유가 논파되면 제시된 주장도 함께 논파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유리처럼 눈 안에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여 두 가지 경우가 다 성립되지 않는다.

3·5. 결론 - 마음은 근안에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아차리는 마음이 온 속에 잠복한 것이 유리가 합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是故로 應知하라 如言호대 覺了能知之心이 潛伏根裏함이 如琉璃舍은 無有是處なり.”

4. 네 번째 주장 - 밖을 볼 때는 뒤를 보는 것이고 어둠을 볼 때는 안을 보는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생의 몸의 오장육부는 안에 있고 구멍은 밖에 있으므로 감추면 어둡고 구멍이 있으면 밝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대면 하여 눈을 뜨고 밖을 보는 것을 뒤를 본다고 말하고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을 안을 본다고 말한다면 이 뜻은 어떻습니까?”

阿難이 白佛言호대, “世尊하 我今에 又作如是思惟호니 是衆生身이 脣臟은 在中하고 穴穴은 居外하니 有潛則

暗하고 有竅則明하니 今我對佛하사와 開眼見明함은 名爲見外오 閉眼見暗은 名爲根內니 是義云何녔고.”

마음이 몸 안에 있더라도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안(內)을 보는 것이며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은 밖(外)을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첫 번째 주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첫 번째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 다시 말해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어떻게 몸속을 보지 못하는가?’라는 반론에 대해 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보는 것이 안을 보는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4 · 1. 부처님의 반론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눈을 감고 어둠을 볼 때 이 어두운 경계가 눈과 아주 대하느냐, 아니냐? 佛告阿難하사대, “汝當閉眼하여 見暗之時에 此暗境界가 為與眼과 對아 為不對眼자.”

4 · 1 · 1. 아주 대하는 경우 - 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눈과 아주 대한다면 어둠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이 성립되었는가?
若與根과 對인면 暗在眼前이어니 云何成內리오.

눈과 어둠이 아주 대하고 있다면 눈은 밖을 향하기 때문에 어둠은 밖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어둠을 본 것이 ‘안을 보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 1 · 1 · 1. 눈이 성립된다는 가정에 대한 반례

만약 안이 성립된다면 어두운 방 속에는 해외 달, 등불이 없으므로 이 어두운 방 속이 모두 너의 삼초육부일 것이다.

若成內者인 廁居暗室中에 無日月燈하여 此室暗中이皆汝의 焦腑이리며

눈이 성립한다면 어둠을 보는 것을 ‘몸 안을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보는 것도 ‘안을 본다’고 할 수 있는가? 방은 몸이 아니므로 아니라 할 수 없다.

4 · 1 · 2. 아주 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봄이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아주 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봄이 이루어지겠는가?
若不對者인면 云何成見이리오.

안식은 안근과 대하고 있을 때만 성립한다. 만약 어둠이 눈을 아주 대한 경계가 아니라면 안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전제가 부정되었으므로 귀류법에 의거해서 이 주장은 거짓이다.

4 · 1 · 3. 内對가 가능한 경우

만약 밖을 보는 것을 버리고 안을 아주 대하는 것이 성립된다면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을 몸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눈을 뜨고 밝음을 볼 때 어떻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가?
若離外見하고 內對所成이라 俗眼見暗으로 名爲身中인 閉眼見明함에 何不見而고

외견을 떠난다는 것은 눈을 감았을 때 몸 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주 대한다는 것은 외대를 의미하는데, 만약 다른 의미의 아주 대함이 성립한다면 안(內)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안을 대한다는 것은 눈이 뒤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눈이 뒤로 돌아 볼 수 있다면 눈을 감은 경우 뿐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경우에도 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가정 : 눈이 뒤로 돌아볼 수 있다면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눈이 밖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이 안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론 : 그렇다면 눈을 뜨고 있을 경우에도 눈을 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눈을 뜨고서 뒤로 돌

아볼 수 있다면 왜 얼굴은 보지 못하는가?

4 · 1 · 3 · 1.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

만약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을 아주한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若不見面하면 內對不成 하리라.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눈을 뜨고 뒤로 돌아볼 수 있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눈을 감은 경우에도 눈은 뒤를 돌아볼 수 없으므로 안을 볼 수 없다.

4 · 1 · 3 · 2. 얼굴을 보는 경우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 알아차리는 마음과 안은 곧 허공에 있을 것이니 어떻게 안에 있다는 것이 성립되었는가?

見面若成 인면 此了知心과 與眼根이 乃在虛空하리니 何成在內리오.

만약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눈과 마음이 몸 밖의 허공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허공에 있다면 본래 너의 몸이 아니며 그러므로 여래가 지금 너의 얼굴을 보는 것도 너의 몸이어야 한다.
若在虛空하면 自非汝體이니 卽應如來가 今見汝面도 亦是汝身 이라.

허공에 있다면 너의 몸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몸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너의 얼굴을 보고 있는 나도 너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두 번째 주장과 같으며 동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4 · 1 · 3 · 2 · 1.

너의 눈이 알았지만 몸은 시작하지 못해야 할 것이다.

汝眼은 已知인間 身合非覺이어늘

또 허공에 있는 눈이 볼 수 있다면 보는 것은 눈의 일이고 몸은 눈과 무관하므로 몸은 지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몸에 지각이 있으므로 이 추론은 거짓이다.

4 · 1 · 3 · 2 · 2.

네가 금이 ‘몸과 눈이 둘 다 안다’고 고집하면 반드시 두 가지 앎이 있게 될 것이므로, 곧 너의 몸도 두 부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必汝執言 金이 身眼兩覺이라하면 應有二知니 卽汝一身이 應成兩佛하리로다.

그런데도 계속 고집하여 몸도 알고 눈도 안다고 한다면 아는 것은 둘이 된다. 앎이 둘이라면 앎의 체인 부처도 둘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모순이므로 이 주장도 거짓이다.

4 · 2. 결론

그러므로 네가 어둠을 보는 것을 안을 본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是故應知하라 汝言 金이 見暗을 名見內者는 無有是處なり.”

아난이 주장한 네 번째 견해인 어둠을 보는 것은 안을 보는 것이고 밝음을 보는 것은 밖을 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여기서 다시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주장은 부정된다. ●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나요?

진 광 / 운문승가대학 학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난 휴식년 한 해 동안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며 보냈습니다. 파우 숲 속 사원에서 우기 안거를 보내고 난 후, 9월 말쯤에 쉐우민 수행센터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쉐우민 수행센터는 양곤 시외의 한적한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 40여 명을 포함해서 외국인과 현지인을 합해 모두 200명 정도의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 운문사 강원 도반인 청현 스님이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곳에서 수행하면서 한국인 수행자들을 여러 가지로 돋고 있었지요. 수행 중 스승과의 인터뷰도 역시 청현 스님이 통역해 주었는데, 아마도 그 때문에 쉐우민 수행센터가 미얀마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도반이라 반가웠고, 살아 있어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이려니 생각하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쉐우민 센터의 분위기는 파우 수행센터와는 좀 달랐습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아침과 점심 두 끼 공양시간을 빼고는 1시간 좌선, 1시간 경행하는 방식으로 보통 밤 9시 넘게까지 자유롭게 명상할 수 있습니다. 수행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장소도 명상 홀이나 각자의 방에서 하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분위기가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위빠사나의 사념처(四念處 : 身 · 受 · 心 · 法) 수행법 가운데 주로 마음을 관하는 심법수행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이란 아는 작용을 하고, 대상은 알려지는 것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통하여 마음이 보는 것이

지요. 소리도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들습니다. 심법수행이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걷거나, 서거나, 앓고, 눕고, 먹는 등의 모든 행위에서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좌선이나 경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상에 대한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볼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작용하며 활나찰나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알아차림과 고요함으로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볼 수 있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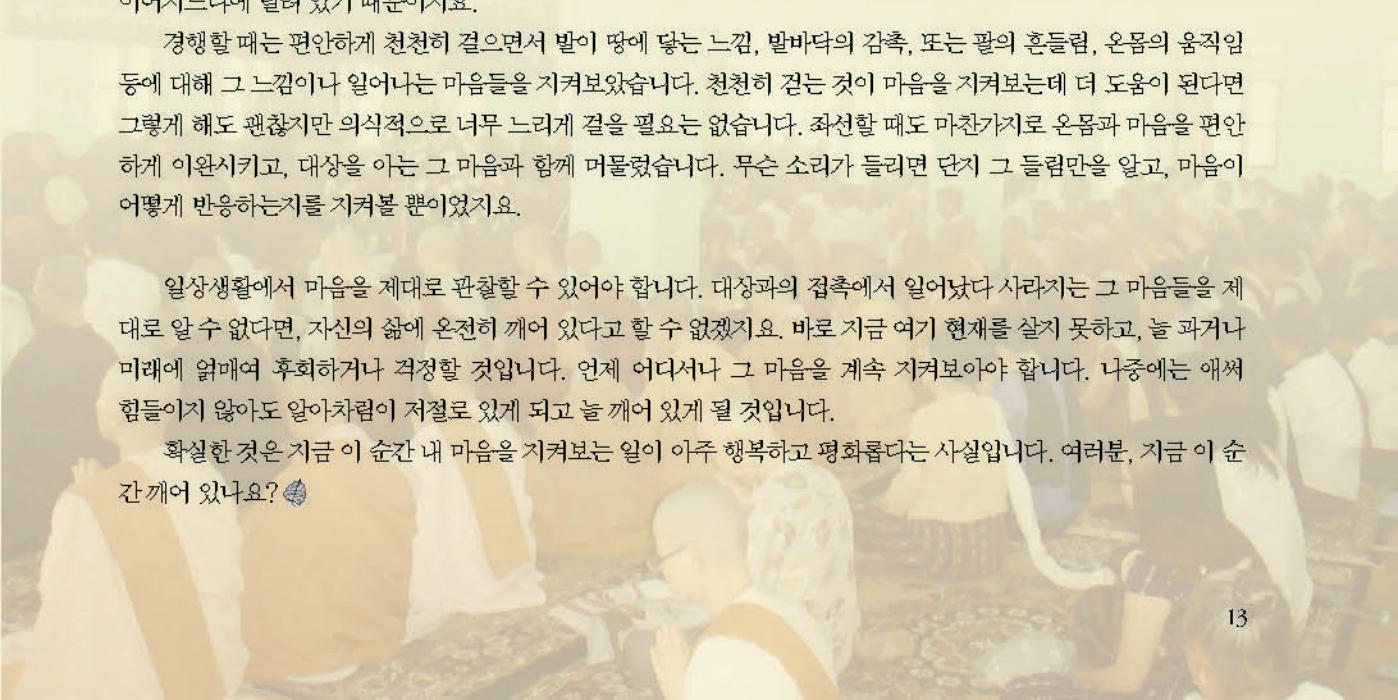
수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마음 상태를 유익한 마음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계발하는 일이지요. 하여 마음에 알아차림과 고요함, 그리고 지혜가 늘어날 때,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여실지 견(如實知見)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혜는 알아차림과 고요함, 알맞은 노력이 균형 잡혔을 때 일어납니다. 고요함이 지나치면 느슨해지고, 노력이 지나치면 긴장하게 됩니다. 수행의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긴장되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꾸준한 알아차림과 고요함, 적절한 노력이 중요하지요.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힘을 잘 안배하여 달리기를 할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좋은 기회이고 인연이었습니다. 일생에 가장 많은 땀을 흘리며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밖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 쉽지만, 대상을 아는 마음을 지켜보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밖의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리고 그 대상에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느끼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또는 자만심과 수치심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때론 미세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그 원인들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아는 지혜는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알아차림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지요.

경행할 때는 편안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발바닥의 감촉, 또는 팔의 흔들림, 온몸의 움직임 등에 대해 그 느낌이나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마음을 지켜보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의식적으로 너무 느리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좌선할 때도 마찬가지로 온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대상을 아는 그 마음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면 단지 그 들림만을 알고,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볼 뿐이었지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과의 접촉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마음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자신의 삶에 온전히 깨어 있다고 할 수 없겠지요. 바로 지금 여기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과거나 미래에 얹매여 후회하거나 걱정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애써 힘들이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저절로 있게 되고 늘 깨어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나요? ☺



세상의 중심에서 소통을 외치다

선하 / 사교과

사교반 선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행자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불교신문에서 미황사 금강스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하나 내셨더군요. 개인적 인연으로 오래전에 알고 지낸 분이긴 합니다만, 최근 그분의 행보는 저를 참 놀라게 합니다. 그 당시 미황사는 불사를 위해 직접 포크레인을 운전하시던 금강스님은 늘 미소 짓 얼굴로 지내셨죠. 벌써 시간이 8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미황사는 이 땅 남쪽의 맨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사찰입니다. 서울에서 이른 아침밥을 먹고 출발해 도 저녁때 맞춰 그 곳에 도착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 곳은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달마산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남해가 보이는 풍광을 가지고 있어 여느 천 년 고찰의 아름다움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황사는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폐사에 가까운, 퇴락한 '옛 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황사를 찾는 사람은 연간 10만명을 웃돌고,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연간 5000명이 넘습니다. 전라도 지역 어느 사찰도 채우지 못한 기록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울의 산사음악회와 패불재는 그 곳이 궁벽한 산골의 작은 절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여름에 열리는 어린이 한문학당은 신청자가 많아 돌려보낼 정도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과연 금강스님의 어떤 원력이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을까요?
스님의 인터뷰 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해 준 것이라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차 한잔을 대접한 것 뿐입니다."

또 미황사는 모든 행사에 지역민들을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화려한 불거리보다는 이 행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꼴몰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공요인이 아닐까요?

금강스님을 보면 사찰은, 그리고 종교는 세상과 어떤 형태와 방법을 통해 소통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산시의 도시 중심입니다. 시민공원이 있는 곳에 위치한 절이라 등산객이나 운동하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걸어서도 시청에서 15분 정도 거리이니 신도님들이 오시기에 편리한 위치입니다. 저희 스님께서 깊은 산골에 있는 천 년 고찰과 현재 저희 절을 두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실 때 문화적 여건이나 포교면에서도 도시가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서산으로 왔답니다. 근데 막상 와 보니 조그만 관음전 하나와 요사채 하나가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붕에

서는 비가 세고 상수도도 없어 샘물을 펴 써야 하고, 정랑도 물이 모자라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화장실을 써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대처스님이 오래 계시던 절이라, 절이라기보다는 일반 살림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신도님들이 많이 계시니 도와주시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주지스님이 바뀐 것에 불만을 품은 신도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은사스님과 저 둘이서 도량 대청소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내 청소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젠 어떻게 신도님들에게 다가 가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선하야,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우리 뚝뚝히 기다려 보자꾸나."

그리고 첫 초파일을 맞았습니다. 신도님들의 텁세로 힘들게 준비한 초파일을 끝내고 난 저녁, 우두커니 법당 앞에 앉아계시던 저희 스님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상황에도 역발상으로 저희 절의 장점을 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언제라도 쉽게 올 수 있고 늘 열려있는 주지실이 그것이었습니다. 고민거리를 들고 와도 되고 장보고 가는 길에 차 한잔 마시면서 스님과 이야기 할 수 있는 따듯한 도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님들 사이에서도 점점 소문이 퍼져, 그동안 오고 싶어도 주지스님의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못 오던 절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방학 때 집에 가면 쉬고 싶어도 노상 들어다치는 손님들 덕에 쉬지 못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밤늦은 시각에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는 길에 스님 보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생할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스템에 불만이 불거져 나올 때쯤 한 남자아이의 49재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의 부모님은 상담하다가 실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부축하시며 울고 계시는 스님을 봤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진정으로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그들을 격안은 저희 스님의 모습은 제 못된 마음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 해결방안을 주진 못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이의 49재가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시는 신도가 되었습니다. 인연의 고리는 계속 이어져 고리에 고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6년 만에 처음으로 개금불사를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은사스님의 법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 일은 예불하고 기도하고 도량을 청소하고 신도님께 인사를 많이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절은 바로 신도님들이 하나하나 손수 불사를 하신 절입니다. 법당에서부터 범종, 집안 가구에 이르기까지 신도님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절이 존재하는 한 이 곳은 여러분의 절이요, 쉼터요, 또 스님들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 벅찬 가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 눈에 고이던 눈물과 그 곳에 있던 모든 분들의 눈물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금강스님이 그렇게 해 오신 것처럼, 저희 스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평등히 대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면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의 은혜가 만방에 드날리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 법문에서 작은 감동이나마 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이 세상 중심에서 소통을 외쳐봅니다.
대중스님, 정진여일하십시오.

21세기 佛教식 경영 Paradigm III

- 현대(現代), Canon, (주)연우와 함께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현서 / 대교과

목 차

I. 서론

- 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장. 연구 방향과 범위

II. 본론

3장. 불교와 경영의 만남

1. 경영의 일반적 정의와 불교식 경영의 차이점
2. 불교식 경영이 주목받게 된 경영의 시대적 변천 과정
3. 불교식 경영의 이해
4. 봇다가 제시한 경영 사상

4장. 불교식 경영의 실현

1.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2. 기업들의 경영전략 비법
3. 불교식 경영 기업들의 경영전략분석

III. 결론

3. 불교식 경영 기업들의 경영전략분석

① 기업은 인간의 행복을 전제로 해야 한다. vs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행복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Nirvana(열반)를 이루고 유지하도록 수행하는 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바이다. 부처님은 사성체, 삼법인, 12연기, 팔정도 등 여러 교리를 설하였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편들이다. 부처는 행복을 설하셨지, 종교를 설하지 않으셨다. 일체 모든 자연의 이치와 그 속에서의 관계, 반복되는 일련의 현상들로 진리를 설하고, 이를 알기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하셨다.

사람이 피로움을 겪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사고의 체계 때문이다.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삶의 습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과 반드시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고집, 불교에서 말하는 3독(三毒 : 탐진치)중에서 치(癡)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하라 말씀하셨고, 어리석은 생각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제자들과 자신을 찾아오는 불쌍한 사람들의 질문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깨부수는 방편을 쓰셨다. 경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마음이 되어서 돌아갔고, 부처님 또한 바쁜 그들을 보면서 행복해하셨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을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직장을 다닌다. 기업들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기업경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직장을 다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의 기업들은 기본적인 생활,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존적 인간형으로서 사람들을 대했다. 하지만, 삶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감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적 수준은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 자신의 자아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¹⁾로써 직장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現代)는 핵심 경영 방침 중 첫 번째가 행복경영이다. 고객의 행

복, 주주의 행복, 임원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목표라고 하고 있다. 사람의 행복, 기업의 근본인 인간이 행복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HLDP(Hyundai Leader Development Program - 현대 리더 양성 프로그램)는 현대가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의 행복, 자아실현을 위해서 급변하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인재(Talent)를 강조하는 현대그룹 신조직문화 「4T」²⁾를 실천함으로써 창조적 리더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현대 인재개발원에서 3박 4일간의 학습교육으로 한 해에 5차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종업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사람 모두가 통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금강산, 개성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을 넘어 남북교류를 통한 인류에게 Business로 기업을 통한 이산가족상봉실험화를 위해 애쓰고 있기도 하다.

Canon은 카메라만큼 경영방식도 유명하다. '공생경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기업의 경영방침은 세계의 번영과 인류의 행복을 위한 개념이다. 함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자는 이 경영방식은 인간존경으로 신가족주의, 건강체일주의, 실력주의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회사직원을 가족처럼 아끼고 배려해주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도록 서로 돋는 신가족주의와 식구가 아프면 걱정이 되듯, 직원이 아프지 않도록 늘 신경 쓰는 건강체일주의, 자아실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실력을 증진시키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실력주의는 Canon이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방식이다. 또

한 스스로의 인격수양과 정신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3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치(自治), 자발(自發), 자각(自覺)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늘 마음수행과 직장생활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연우와 함께'라는 불교 홈쇼핑기업은 '착한소비경영'이라는 모토 아래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바른 가격에 사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베풀고 함께 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불교식 이념이 잘 실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또한 주주나 경영자나 소비자나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참여경영을 실시, 투명하고 열린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행복의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행복,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복, 널리 보시하고 나누어 주는 행복, 한 치도 계율을 소홀히 하지 않는 행복, 인내하여 자신을 곧게 바꾸는 행복, 정진하여 선을 완성하는 행복, 선정을 닦아 법을 향수하는 행복, 지혜를 닦아 번뇌가 스러지는 행복, 깨달음이 커기는 일에 대한 행복, 마를 쳐부수는 행복, 온갖 번뇌를 깨트리는 행복,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행복이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행복입니다.

-「유마경(維摩經)³⁾ -

- 1) 매슬로우(1908~1970)가 브랜다이스 대학에 재직할 당시에 집필한 「인간의 동기와 성격(Motivation and personality)」에서 욕구 5단계설(Need hierarchy theory)로서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충족됨에 따라서 차츰 상위 단계로 올라간다'고 정의하고 있다.
 - 1단계 :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 2단계 : 안전욕구(Safety Needs)
 - 3단계 : 소속감과 애정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 4단계 : 존경욕구(Esteem Needs)
 - 5단계 : 자아실현욕구(Self Actualization Needs) 4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의 능력 발휘, 지속적인 자기계발 등 자아실현욕구가 나타난다. 계속적인 자기발전을 통해 인격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잠재력 극대화로 자신의 꿈을 완성시키려 한다.
- 2) 4T는 현대그룹이 현정은 회장 취임 5주년을 계기로 선포한 신조직문화로 'Trust' (신뢰), 'Talent' (인재), 'Togetherness' (총연일체), 'Tenacity' (불굴의 의지)를 핵심가치로 선정,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 3)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대승불교 경전으로, 3회 14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비단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일을 하는 동안에도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다. 기업은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으로 완성된다. 행복한 사람이 많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고, 더 나이가 제품을 생산, 판매, 이익에 걸친 전반적인 기업의 효율이 증대되게 된다. 행복경영은 이제 기업이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②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vs 보시와 자비의 실천은 불교의 행이다.

육바라밀은 불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한 수행법이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보시⁴⁾인데, 이는 보시로 인한 행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에게 베풀고 있어서 행복해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너와 내가 둘 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할 때, 나 또한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내가 힘든 순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뒤, 그것을 주는 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을 준다.

보시를 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이 신뢰는 제품의 소비로 이어져 이익의 향상을 가져온다. 인간적 기업, 윤리적·도덕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봉사와 보시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대그룹은 여러 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계열사들은 저마다의 봉사활동영역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시와 봉사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현

대상선(Hyundai Merchant Marine)의 소년소녀 가장 방선(訪船)체험, 서울의 숲, 부산 유엔공원 환경정화 운동, 해양대 장학금을 지원하며, 현대증권(Hyundai Securities)의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난방유 지원, 불광동 송죽원(아동복지시설)봉사, 결식우돌기 콘서트 후원, 현대엘리베이터(Hyundai Elevator)의 승강기 무료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지역사회 (장애·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 급여끌전공제 및 매칭 그랜트 기금의 기부, 장학금 지원, 현대로지엠(Hyundai Logiem)의 한울장애공동체 봉사활동, 생활보호대상자 부식배달 봉사, 서울 노인복지센터 배식 봉사, 현대아산(Hyundai Asan)의 서울시립 소년의 집 봉사활동, 북측 금강/고성군 식량지원, 초도리 수해주민지원, 현대유엔아이(Hyundai U&I)의 강화군 소년소녀가장 IT 무료교육, 괴주 노인복지회관 PC청소 및 기증, 현대경제연구원(Hyundai Research Institute)의 노숙자 대상 무료 급식, 소년소녀가장, 장애아동, 의료복지재단 기부, 모잠비크·캐나 불우이웃 후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Canon의 경우에는 사회지원사업으로, '희망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요즘 빠른 스피드로 발전하는 중국에서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인해 산촌이나 외곽지역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Canon은 1995년, 생산회사 캐논 대련의 설립을 기회로 '희망공정'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대련 교외에 있는 캐논(佳能 중국어 표기) 희망초등학교의 건설을 비롯해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서는 중국 전역에 여섯 개의 '희망초등학교'를 지원하고, 교사(敎舍)의 신축 및 수선, 장학금 제도의 설립, 교재나 문방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초등학교를 방문, 디지털카메라나 프린터를 사용해 사진 수업을 하는 등 어린이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다.

4) 단나(檀那)로 음역한다. 보시란 널리 베푼다는 뜻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한다. 베푼 것에는 재물로써 베푼는 재시(財施)와 석가의 가르침, 즉 진리를 가르쳐 주는 법시(法施),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무위시(無畏施)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보시는 사설법(四攝法) 가운데 들어 있어 보살이 중생을 교화(敎化)할 때의 행동양식의 하나로 권장되고 있다.



5)



6)

'(주)연우와 함께'에서는 나눔의 동지행사로 꽃죽을 쑤어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불교라는 종교적 색채를 떤 기업으로 자비의 실천을 행하고 있다.

III. 결론

기업은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은 저마다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간다.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불교는 공사상이다. 아무것도 집착할 것이 없으며 무상함을 가르친다. 주관과 가치관을 없애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불교는 어떤 것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가르칠 뿐이다.

기업도 사람처럼 기업의 윤리사상과 기업만이 가지는 핵심 가치관이 존재해야 시장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기업이 무엇을 표방하는지, 무슨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확실한 제시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의 가치관을 불교에서 찾는다 함은 근본적 윤리사상의 토대를 인류애와 정도(正道)에서 찾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을 통해 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는지, 종교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종교적 가치관이 기업 정신에 영향을 끼쳐 인류애적 평등한 사랑을 펼치게

하므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착각을 불식시키고 있다.

바쁜 기업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순간적인 침체는 있을 수 있어도 정당한 기업을 어느 누구도 물리치지 않는다. 꾸준한 기업의 성장과 수익창출은 믿음 즉, 신뢰를 주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믿음,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믿음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제품에 대한 확신은 수익창출과 경제적 성공을 이끌 수 있다. ●

IV. 참고문헌

- 신동기 - Peter F. Drucker 미래사회 리더의 경영키워드
- 조선일보사 - 1등 할 수밖에 없는 조조의 관리 전략
- 김경준(딜로이트 파트너) - 인정받는 팀장은 분명 따로 있다
- 홍사성 - 날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
- 하워드슐츠, 도리존스양 - 스티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신화
- 권경희 - 봇사의 상담, 꽃향기를 훔치는 도둑
- 홍사성 -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 장 프랑수아 르벨, 마티유 리카르 / 이용철 옮김 - 승려와 철학자
- 종곡문옹 - 부처님의 가르침
- 법정 옮김 - 진리의 말씀
- 홍사성 - 미음으로 듣는 부처님 말씀
- 마르크 풍투세, 도미나크상블레 / 강주현 옮김 - 하룻밤에 읽는 경제학
- 라인하르트 K. 슈프랭어 / 이민수 옮김 - 개인주의 시대의 경영 원칙

5) '희망학교'는 3층 건물로 15개의 교실이 있으며, 식당도 있다. 현재, 170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배우고, 뛰어 놀고 있다.

6) 캐논 중국 사원이 자원봉사로 연 교실 모습의 사진.

수행자

편집부

“태양의 후예이신 위대한 선인(仙人)께 세속에서 멀리 떠나는 일과 평안의 경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행자는 어떻게 보아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평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의 근본은 모두 억누르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애착까지도 눌러 버리도록 항상 명심하여 배우라. 될 수 있는 한 안팎으로 이치를 알아 두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뛰어났다 든가 나는 뒤떨어졌다든가 혹은 나는 대등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더라도 자기가 절났다고 생각하지 말이라. 수행자는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밖에서 고요함을 찾지도 말이라. 안으로 평안하게 된 사람은 고집할 것이 없다. 하물며 어찌 벼릴 것이 있으랴. 바닷물 속에서는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하듯이, 고요히 머물러 움직이지 말이라. 수행자는 무슨 일에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눈을 뜨신 분께서는 몸소 체험하신 법, 위험과 재난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건대, 바른 길을 일러 주십시오. 계율의 규정이나 정신 안정의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탐내지 말라. 저속한 이야기에서 귀를 멀리하라. 맛에 탐착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라.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을 탐내서도 안 된다.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라도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 음식이나 옷을 얻더라도 묵히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다 해서 걱정해서도 안 된다. 마음을 안정시켜라. 당황해서는 안 된다. 후회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수행자는 한가하고 고요한 앉을 자리와 누울 곳에서 살아야 한다.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으로 오락과 이성 간의 교제와 걸치례를 벼려라. 내 제자들은 아타르바베다의 주문이나 해몽·관상·점술을 쳐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 말고,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라.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는 장사해서는 안 된다. 결코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해서도 안 된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또 수행자는 거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쇠락적인 언사를 써서도 안 된다. 오만불손하거나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피하라. 조심해서 속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나 지혜에 대해서 혹은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출가 수행자는 말 많은 세속인들한테서 욕을 먹거나 불쾌한 말을 많이 듣더라도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선한 사람들은 적의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이 이치를 알아 잘 분별하고 늘 조심해서 배우라.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가 평안임을 알아라. 이와같이 역래의 가르침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따라 배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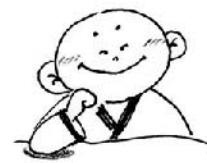
『經集』



悠悠自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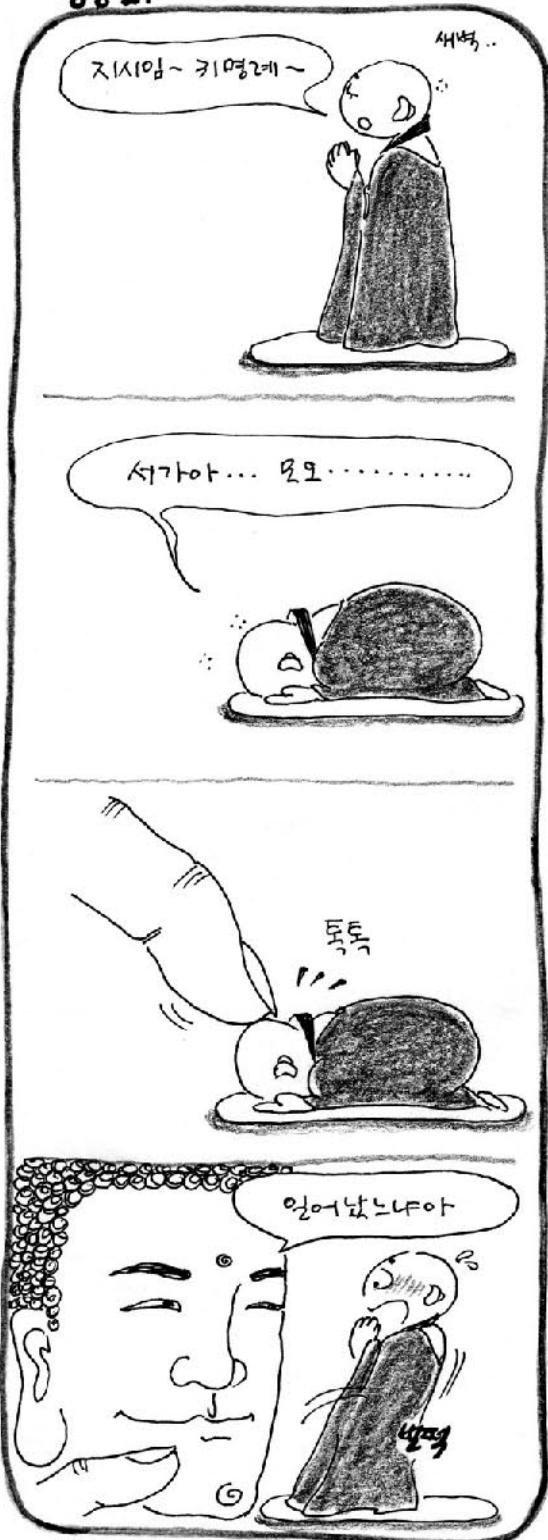
지오 / 사교과

가끔은 이런 상상을!



서주 / 대교과

상상1.



가끔은 내침으로 하느라 아낄 때가 있습니다.

상상2.



다녀요. 뛰지말고 위의있게!

상상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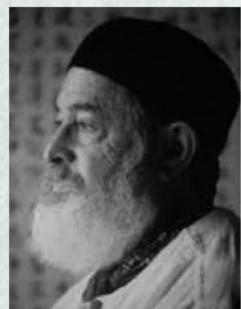


선풍기바람보다는 자연바람!

An Interview with Bill Porter

빌 포터(Bill Porter)와의 인터뷰

인터뷰 선준 / 대교과 번역 덕안 / 대교과



Bill Porter, who publishes his translations under the name Red Pine (赤松), is an award-winning translator of Chinese poetry and Buddhist and Taoist texts. Remarkable for a simple elegance that doesn't compromise a text's deeper meaning, his English sutra translations have in particular caught the attention of Western Buddhists. He has also published two travel diaries, one following the first six patriarchs of Zen and another in search of hermits in modern China. Mr. Porter spent over twenty years in China, including a few early years in a Buddhist monastery, and currently divides his time between Port Townsend, Washington USA, and China.

빌 포터(Bill Porter)는 적송(Red Pine, 赤松)이라는 필명으로 중국 선시와 불교, 도교의 경전들을 다루는 저명한 번역가이다. 그의 불교경전의 영문번역은 간결하면서도 품격있는 문체와 원문의 깊은 의미를 놓치지 않는 뛰어남으로 특히 서구의 불자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그는 번역뿐 아니라 두 권의 여행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한 권은 중국 선종의 초조6대의 자취를 밟은 것이고, 다른 한 권은 현대 중국의 은자(隱者)들을 찾아가는 기행문이다. 포터씨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중국에 살면서 그 중 초반 몇 년은 불교사찰에서 지냈다. 요즘은 미국의 위싱턴주 Port Townsend와 중국에서 반반씩 보내고 있다.

Although an increasing number of Westerners, Buddhists among them, are aware of Mr. Porter's work and contributions to East Asian literature in translation and he is known in China, no mention has been made of him in Korean Buddhist circles. I was introduced to Mr. Porter's books when I read his translation of Cold Mountain's collected verse, but it wasn't until I read his translation of the *Diamond Sutra* that I began to think something pivotal was occurring in Buddhist translation. Mr. Porter's *Diamond Sutra* combined the rhythm and terse density of poetry with a style free from awkward and dated word choice, allowing the sutra's meaning to emerge naturally from the text rather than being buried by strained language and discordant phrasing. His inclusion of various commentaries from both the Chinese tradition and modern teachers was invaluable to me as a student of the sutra working with the traditional Chinese translations and commentaries but also needing to access the *Diamond Sutra* in a modern language.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서양 불자들 사이에서 그의 동아시아 문학 번역 사업과 그것에 기여한 공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에서도 지명도가 있지만 한국 불자들에게는 생소하다. 그의 금강경 번역을 보면서 불교경전 번역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 정도로 포터의 금강경 번역은 시의 운율과 압축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경전 자체의 깊은 뜻이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금강경 번역들이 언어에 매여 어구에 경전의 본 뜻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그의 다양한 주해(註解)들은 옛 중국 조사들과 현대의 선사들의 소(疏)를 모은 것으로 중국 전통 불교 경전의 해석과 행상들을 배우고 현대적 언어로 접근 할 필요성을 느끼는 학승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Currently in Korea, the push for translations of traditional texts into modern Korean has become both a necessity fo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Buddhists and a point of debate in monastic education. Mr. Porter's work proves that translation from a root text does not have to compromise the power and depth of the sutra, and I hoped that introducing Mr. Porter and his work to a Korean audience might help us navigate our own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ranslating our tradition into a modern language, as well as gain a different perspective on Buddhism and modern society. It was with this in mind that I conducted this interview over the phone with Mr. Porter, while he was at his home in Washington.

최근의 한국 불교계에서는 전통 경전의 한글화가 차세대 불자들의 요구와 전통 강원 교육에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빌 포터의 작업은 원문에 뿌리를 둔 충실했던 번역으로 경전의 힘과 깊이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염두해 보이고 있다. 그와 그의 작업들을 한국의 불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한국 불교 전통을 불교계와 일반 사회의 관점에 함께 부합되도록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인터뷰를 기획하였고, 한국과 위싱턴에 있는 그의 집에서 전화로 이루어졌다.

I'd like to talk about your current project, the *Lankavatara Sutra*. What attracted you to this particular sutra, and why did you decide to translate it?

It's the most famous sutra associated with Zen, and it's so difficult. I looked at it maybe 30 years ago and was put off because it was so difficult. But I've since become a translator, so I've become familiar with how to go about taking a text which is not immediately understandable and just being patient enough to figure out what it means. I wanted to work on the *Lanka* but have been unable, until about ten years ago I found a book in Taiwan. There are 3 translations of the *Lanka*, and so this one book which was put together in the Ming dynasty took all three versions of the *Lankavatara* and compared them paragraph by paragraph. Once I saw this book I could see how all these different translators had dealt with the *Lankavatara* and it made it much more attractive for me to think, that, well, I could see how three other people worked with this, so why don't I try. That's what got me started and threw me into the idea that maybe I could do this book.

당신의 최근 작업인 『능가경』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이 경에 관심을 갖게 했고 왜 번역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능가경』은 가장 잘 알려진 선종의 경전이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덮어두었죠. 그런데 번역가가 되고 나서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원문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뜻을 알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는 10년 전 대만에서 그 경전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능가경』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능가경』에는 3개의 번역본이 있습니다만 저의 번역본에는 명나라 때의 3家의 해석을 문장마다 비교 분석하여 하나로 합쳤습니다. 『능가경』을 처음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의 경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3家の 작업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 또한 이 경을 번역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ould you talk a little more generally about translation, what works and doesn't? What is your approach to translation?

Most Buddhist translators are either overly devotional or overly scholarly. It's very rare that a scholar knows how to translate, because they haven't practiced translation as an art. It's also rare to get a Buddhist practitioner who has a certain amount of scholarship and who is also devoted who is not in bondage to that devotion.

The secret for me for translating is keeping an open mind. The longer you can keep an open mind on a given sentence or a given paragraph, the more chances you have of seeing mistakes that you've made. Once you've decided, "Oh, that's a perfect translation!" then you've walled yourself in for that line or paragraph or whatever. But I don't look it at it like that. Every time I go through my text I'm always open, everything's open. I'll sacrifice any phrase or any word. No attachments to the language. You have to keep an open mind as a translator and be willing to make changes.

번역에 대해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접근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자들 중에 번역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번역의 기술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불교 번역가들은 너무 신앙적이거나 학문적입니다. 불교 수행자 중에서 학문을 겸비하면서도 종교적이고 그것에 얹매이지 않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 번역의 비결은 항상 열린 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문장에서 자신의 실수를 찾아낼 기회가 많아집니다. 한번 당신이 '이건 완벽한 문장이야.'라고 생각하고 사고를 닫아버린다면 그 안에 갇혀 버립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매번 나의 번역을 볼 때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어떤 단어나 문장도 과감히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언어에 집착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번역가로서 열린태도를 가지고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n Zen Baggage you recalled a conversation with some Chinese monks who wanted to start a program for foreigners in a Chinese temple to teach them Buddhism. In the book you wrote that you thought it would be more useful to teach some of the monks English and send them to the West and have them set up small centers, in apartments, to learn what people over there really wanted and needed from the Dharma. What do you think now?

I'd still go along with that. [The Chinese] think, "We're Chinese Buddhists and we have something that would really benefit the West, and so we should be transmitting this to the West." You come up with different schemes for making that work. I just happen to think that this idea of building big monasteries in America wasn't the way to go about it. I thought it should work on a grassroots level, working with individuals face to face. My own experience with large Chinese monasteries that have come over to America is that they become centers for overseas Chinese or Asians living in America. The Westerners never show up, or if they do, they just go there out of curiosity, and the practices just aren't adapted to Western civilization. They always feel so arcane and uncomfortable. A good example is the City of 10,000 Buddhas [a Chinese-tradition temple in California]. That organization is extremely wealthy and has hundreds of wonderfully devoted practitioners, and has made zero impact on Buddhism in America because they still can't get past their own walls—and I'm not just talking about the monastery walls.

『Zen Baggage』라는 책에 나오는 외국인들에게 중국 사찰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국 스님들과의 대화에서 당신은 스님들이 직접 영어를 배워서 불법(佛法)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서구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센터를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불자들은 불교가 서구사회에 공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법(傳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미국에 큰 사찰을 지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포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본 많은 경우가 중국 사찰이 미국에 본원을 내었을 때 미국에 사는 중국계나 아시아계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더군요. 서양인들은 절대 오지 않거나 그저 호기심으로 잠깐 방문할 뿐이지 수행법이나 그 외의 가르침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사찰을 신비주의적이거나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만명의 불자들의 도시(City of 10,000 Buddhas)"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국계 사찰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단체는 꽁

장히 부유한 몇 천명의 신실한 수행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벽에 갇혀서 미국 불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단순히 사찰의 높은 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essence of Buddhism?

The thing I always try to get across is, "Buddhism is all about me." It's all about me and my problems and the solutions to my problems. I always like to get down to basics and not get too far from what people can understand at a basic level. I think Buddhism too often ends up as people learning philosophy or studying some really arcane things and thinking they understand Zen now because they know all these koans. The suffering in their own life has not gone away, it's not been ameliorated, they haven't been able to face their own death or the death of their loved ones any better than before they started practicing.

불교의 정수(精髓)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교는 나에 관한 것이 전부다(Buddhism is all about me)"라는 명제입니다. 불교는 나와 나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의 해결방안들이 전부입니다. 저는 기본에 충실히 하려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너무 철학적으로만 생각하거나 밀교적인 의식(儀式)들만을 배우려고 합니다. 또는 많은 공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禪)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삶의 고통들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 불자들은 수행을 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직시하는 것에는 조금도 익숙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Any future projects?

I've wanted to do a biography of the Chinese Zen Master Empty Cloud [虛雲]. I wanted to do it because I know some of his surviving disciples who are themselves great Zen masters, and they're dying. There's only a few left, and I know them. Plus I have his complete works and I've met this wonderful Italian woman who's done her Ph.D. thesis on Empty Cloud. I wait for projects where I have karmic connections, and I feel like I have a karmic connection to Empty Cloud. Another project is a book like Zen Baggage, but about poetry, sort of a book whereby I travel through China and introduce China's great po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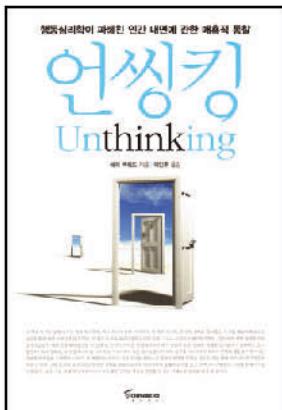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국 허운 대선사의 전기를 쓰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몇 분 남아계시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허운 스님의 제자 중 훌륭한 선사로서 현존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분에 대한 완성된 자료집이 저에게 있고 운 좋게도 스님에 대한 박사논문을 쓴 이탈리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데 허운 스님과의 그 시절 인연이 온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국여행을 할 때 모은 시들과 중국의 위대한 시인들을 소개한 책인 『Zen Baggage』같은 작업도 계획 중입니다. ●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숨겨진 놀라운 힘!

- 해리 베위드의 『언씽킹(Unthinking)』을 읽고 -

진관 /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모든 선택을 의심하고 뒤집어라.
그건 모두 누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항상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고 내렸던 판단, 선택, 행동, 결정이 왜 번번이 실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일까?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 온 방법과 전략들을 별다른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들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무의식적으로 흡내 내고 따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해리 베위드는 우리가 실패한 선택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힘, “언씽킹”에서 찾아낸다.

“언씽킹”的 사전적 정의는 생각 없는 결정,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을 뜻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언씽킹”이란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과 진짜 최선인 것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간극을 규명해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뜻한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낱낱이 해체하고 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 우리를 진짜 최선으로 이끄는 것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그 모습을 끌어내는 힘이 “언씽킹”인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을 기억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대이론”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맛을 느끼고 기대한 대로 보며 기대한 대로 경험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뭔가가 머리카락을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치아를 하얗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머리카락이 자라고 치아가 하얘진다. 그래서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약속한’ 효과를 본다.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믿고 있는 ‘현실’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일 때가 많은 것이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 행동과 결정의 배후에는 언제나 수많은 유혹이 숨어 있다. 우리의 선택을 끌어냄으로써 이를 통해 성공을 창출하고자 하는 커다란 욕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을 들려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누군가로부터 유혹받고 조종받고 조작된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누군가의 욕망에 끌려다니고, 불들려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우리의 ‘씽킹(thinking)’은 누군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 왜곡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씽킹(unthinking)’은 이 같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언씽킹의 영역이야말로 우리의 정확한 니즈(needs)와 원초(wants)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우리의 ‘씽킹(thinking)’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확한 니즈와 원초가 숨어 있는 ‘언씽킹’을 통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결코 유혹당하거나 조작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정확한 니즈와 원초, 즉 언씽킹을 찾아가는 여행을 끊임없이 지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강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비슷한 작은 다윗을 응원한다. 우리는 첨단제품보다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장난감처럼 보이는 제품을 훨씬 더 좋아한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눈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원한다. 우리는 놀라움과 반전을 사랑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함을 선호한다. 우리는 모두 워커홀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놀고 즐기고 게임한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진실한 느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예전부터 좋아했던 것을 지금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우리의 생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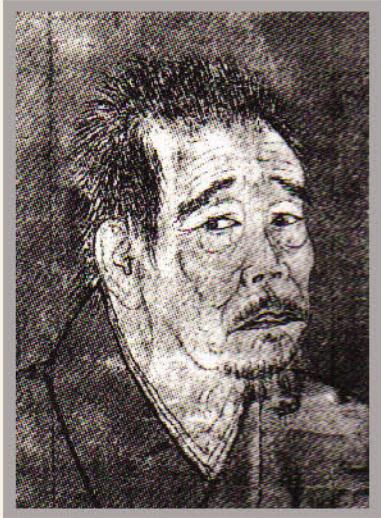
지금은 정보의 시대가 아니다. 범람의 시대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 유행에 불과하다. 이렇듯 너무나도 많은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준의 공식과 질서에 의거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해체된 곳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과 행동을 취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정확하게 짜뚫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규명해낸다. 그리고 ‘언씽킹(unthinking)’은 잘못된 학습과 세뇌에 따른 실패의 첫바퀴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하고 싶다’는 갈망의 기로에 있는 우리에게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저자는 행동심리학을 말하지만, 우리는 언씽킹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내면의 자신과 만날 수 있다. 자, 이제 가만 앉아서 자신을 살펴보라.

아직 보지 못했다면, 지금 가서 보라!!!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위력인 우리의 마음을…….



자유와 파격 그리고 사랑, 잇큐(一休)선사

현우 / 사집과



깨달은 도인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잣거리로 숨어 일없는 노인
네의 모습으로 수순하거나, 시대를 뛰어넘는 파격으로 인간 정신의 자
유로움을 보여주며 세상을 경쾌하기도 할 것이다. 신라의 원효스님이
그랬고, 일본의 잇큐(一休)스님도 그렇다.

十年花下理芳盟
一段風流無限情
일단풍류무한정
情別枕頭兒女膝
정별침두아여슬
夜深雲雨約三生
야심운우약삼생

십 년 동안 꽃 아래서 부부연약 잘 지쳤으니
한 자락 풍류는 무한한 정취여라
그대 무릎 베고 누워 이 세상을 하직하니
깊은 밤 운우 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도인들은 앉아서 해탈하고 서서 입적한다지만, 그대 무릎 베고 누워 세상 하직이라……. 일본스님이므로 부인이 있어도 무탈한 것인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던가. 잇큐소준(一休宗純, 1394~1481)스님은 일본 무로마찌 시대의 임제종승
려로 출생과 수행이 별났으며 기행으로 유명했다. 아버지는 57년간 갈라져 싸우던 남북조를 통일한 북조의
고코마쓰(後小松)천황이고 어머니는 남조 고관의 딸이었다. 모함을 받아 궁에서 추방당한 어머니는 민간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궁 밖에 있어도 황족은 황족, 나라의 분열을 염려한 장군가에 의해 아이는
6살에 안국사로 출가하여 슈겐(周建)이란 법명을 받았다.

성품이 밝고 영리하며 시를 짓는 재능이 뛰어났으며, 13세 때는 「장문춘초(長門春草)」, 15세 때는
「춘의숙화(春衣宿花)」라는 한시집을 지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1415년, 슈겐은 교토 대덕사의 가소소돈(華叟宗曇)을 찾아가 며칠을 밖에서 물러나지 않고 기다려 제
자가 되었다. “동산삼십방”이란 공안에 “유루지에서 무루지로 돌아가 잠시 쉴 뿐. 비가 내리면 내리고, 바람
이 불면 불고”라고 대답해 카소 화상으로부터 ‘잇큐(一休)’라는 도호를 받았다. 1418년, 25세 때의 일이
었다.

이후 점점 가혹한 수행으로 맹렬히 정진하여 1420년 27살 여름밤에,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돌연
크게 깨닫는다. 카소 화상에게 그 견해를 보여주자 화상은 나한의 경지라고 나무랐고, 스님은 나한으로 족
하다고 대답했다. 화상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인가증을 주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전해 받은 인가
증도 태워버렸다. 이후 잇큐스님은 시, 광가(狂歌), 서화와 기행의 세월을 보냈다.

천황인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은 34세 때이다. 천황은 그 후 가끔 스님을 불러들여 불법을 물었고, 선
(禪)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음 대 천황인 칭광천황, 후회원천황의 귀의도 받았다. 35세 때는 스승
인 카소 화상이 입적했고, 디비를 마친 잇큐스님은 운수행각(雲水行脚)했다. 40세에, 아버지인 고코마쓰 천
황이 마지막으로 스님을 불러들였다. 스님은 병든 천황을 위해 설법했고, 천황은 책자, 연적 등의 선물을 내
렸다. 바늘 한 개도 여분으로 두지 않던 스님이지만, 아버지가 준 보물은 어디를 가도 지니고 다녔다.

목검을 가지고 다니며 “목검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요즘의 선가도 목검이나 쥐고 있다”고
허식과 위선을 비판하였다. 어느 정월에는 지팡이 끝에 해골을 매달고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외치며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 무상을 경쾌하였다. 대덕사가 불이 나 전소했고, 사형인 양유가 복원 불사를 위해 인가증
까지 남발하자 매승(賣僧)이라고 비판하였다. 차림은 거지와 다름없어 멋대로 자란 머리에 땃국물 흐르는
얼굴이었으나 계율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인간다운 면모는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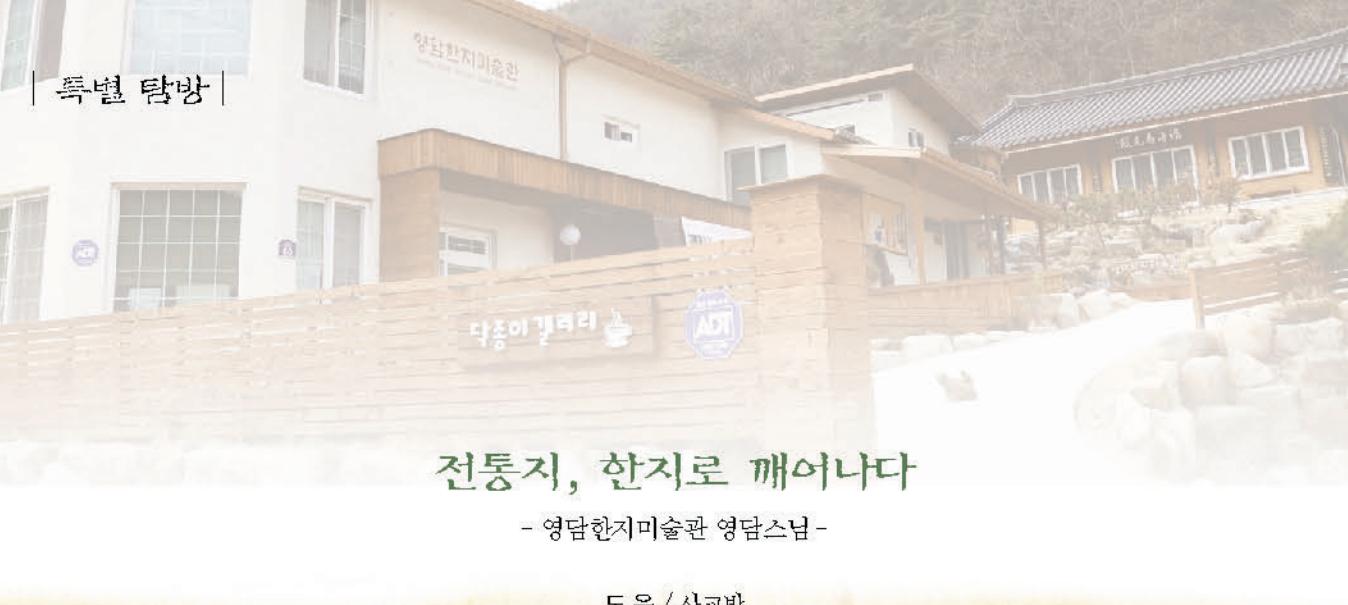
66세 때 천황의 척명에 의해 대덕사 주지를 잠깐 지냈으며, 77세 때 응인의 난을 피해 보온암에서 피난
하였다. 그때 장님인 삼녀(森女)를 만나 사랑하였다. 삼녀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고, 미인이었다. 「광운집(狂
雲集)」에서 그 아름다움을 기린 시를 몇 수 볼 수 있다. 사랑에 대한 정서를 적나라하게 노래한 시가집 「하
회록(下火錄)」도 펴냈는데 묘사가 솔직하다.

시들고 잎 떨어진 고목에 다시 봄을 맞으니 /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니 옛날이 새롭구나 /
삼(森)의 깊은 이 운혜를 내 만일 잊는다면 / 무량억겁동안 축생보를 받으리라

88세인 1481년, 지병이 악화되어 삼시자(森侍者)와 제자에 둘러싸여 차분히 자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입
적했다.

벗나무 가지를 / 부러뜨려 봐도 / 그 속에 벚꽃이 없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파격과 기행으로 가득한 삶이지만 그 향기는 그윽하다. 만발한 벚꽃처럼 미친 듯 살고 벚꽃 지듯 흘연
히 돌아갔다. 전란과 쌔움으로 지친 시대, 특별한 출생, 굴레일 수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도 투철하게 수행
하여 인간 정신의 자유를 획득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거칠없는 자유를 온몸으로 보여
준 스님. 그 결모습만 쫓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수행자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



전통지, 한지로 깨어나다

- 영담한지미술관 영담스님 -

도 우 / 사교반



온편 잔디밭에는 작은 석조물 몇 개와 낮게 키를 맞춘 꽃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작은 도량에 어울리는 아담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현관으로 이어진 하얀 벽 안으로는 미술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이어졌다. 작은 계단을 통해 올라간 2층 전시실은 나즈막한 천장에 작은 벽면들이 좁은 통로 사이로 계곡처럼 흘러 있었다. 작은 벽과 벽, 모퉁이와 모퉁이 사이사이마다 놓여 있는 각각의 작품에선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영담한지미술관은 건축물의 규모와는 상이한, 스님의 작품만으로도 충분히 크고 웅장한 갤러리였다.

우리나라 전통 종이는 서간지, 보들종이, 장지, 삼베지, 야들종이 등 백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각기 고유한 명칭으로 불렸지만, 근대 이후 값싼 양지가 대량 공급되면서 우리 종이의 시장성은 떨어지고 생산, 소비량도 자연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종이는 ‘한지’라는 대명사로 통칭되면서 종이에 관한 고유한 우리말과 우리 종이의 맥이 점차 사라져갔다.

스님과 종이의 인연은 소꿉친구와 같다. 부친이 한약방을 운영한 터에 첨약 써는 종이가 늘 주변에 있어, 스님의 유년시절에는 딱지 접기 같은 종이 놀이의 추억이 많다. 출가 후, 걸림 없는 수행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자급자족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 병편으로 모색한 것이 한지였다. 한지를 선택한 이유에는 유년시절의 친근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옛날 우리 스님들이 종이의 맥과 전통을 전수하기 위하여 힘써온 정신을 알기 때문이었다.

옛날, 종이가 귀하던 시대에는 소비층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중에서도 스님들의 종이야말로 만들고 쓰임에 있어 종이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서책을 소장하기 위해 모두 손으로 필사하여 보관하였다. 사찰 또한 사경의 방식으로 경전이 전래되었기 때문에 불화 또는 경전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고급지를 만드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종이의 발전뿐 아니라 인쇄술의 발전에까지 기여하였고, 그 결과 팔만대장경과 같은 역사를 창출케 하였다. 스님들이 종이를 연구하고 제작함은 비단 종이를 만드는 것만 다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자심귀명례이며 수행의 한 방편이었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정성과 청정이 뒤따르는 수행의 작업이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스님의 한지가 현대미술의 한지공예로 거듭난 특별성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정성’ 때문이다. 이는 ‘탁’이라고 하는

나무의 물성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생기는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 스님은 덕나무의 물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변화를 이용하여 스님만의 특별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한국문화의 특질은 정성에 있어요. 테크닉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절집 문화만이 수행, 정성, 불성이 한 데 어려가 되어 기막힌 작품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전 스님들의 자급자족하는 생활 속에서 불교문화와 전통이 발전되었고, 그 생활은 수행정신으로 승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을 회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요즘 스님들은 반성해 보아야 해요.” 스님은 점차 나약해지는 학인들의 정진력에 대해 걱정하셨다.

종이를 만들기 시작한 30여 년 전 스님은 네모나고 판판하다는 종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방법으로 또는 장난삼아 만들어 본 것들이 지금은 작품으로써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스님의 작품엔 실패가 없다. 스님의 작품이 세상에 전시되기까지 또 그 문화와 정신을 알리게 되기까지 스님이 따로 노력한 것은 없다. 다만, 종이와 함께 스스로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갈 뿐이었다. 현재 스님은 종단 내에서 종이공예를 수용하여 그것을 병편으로 자급자족했던 절집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전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원력을 가지고 외로운 노력을 하고 계신다.

영담스님은 당신의 떡이 부족하여 종이의 전통과 맥을 되살리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미술관이 있는 보감사에 ‘빛의 균원이며 무량한 자비의 원천’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것은 너그러운 허공과 같고 내비려 두어도 한결같이 기다려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종이” 때문이라고 하시는 스님의 마음에 어찌 떡이 부족하다 할 수 있을까? ‘久久必有入處.’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이 있다는 말처럼 스님의 일심 원력 또한 그려하리라. 분명 우리나라 전통 종이의 맥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운문사 여름불교학교



▲ 예불



▲ 수계식



▲ 선무도



▲ 발우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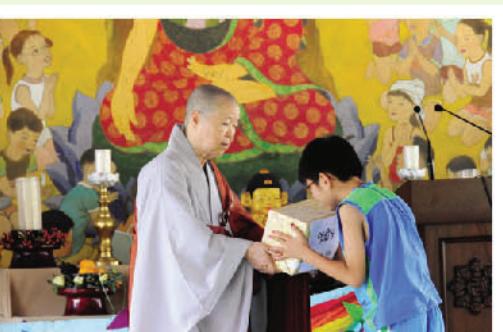
▲ 물놀이



▲ 행복 명상



▲ 캠프파이어



▲ 회향식

부처님 법에서 부처님 법으로

- 도성 영공스님(상가라자 뿐나산도 스님)을 뵙고 -

현우 / 대교과

부산의 명소인 태종대에 위치한 태종사. 매미 소리와 어우러진 깊은 숲과 절은 바다향기 견네주는 푸른 바람은 일상사에 매달려 있는 우리에게 좋은 영양제 같았다.



우거진 숲에 절 입구 표시인 돌 비석이 보인다. '태종사'라는 시찰명과 함께 양쪽에 '세존사리봉안도량'과 '보리수해동초이식성지'라고 새겨져 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니 우리를 제일 먼저 반겨준 건 오묘한 표정과 균형 잡힌 자세, 입은 살며시 다물었으면서도 미소를 머금고 있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쑥 빼닮은 반가사유상이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수국들, 말 그대로 꽃밭에 안주해 있는 모습이 연화장세계처럼 보인다. 힙장 반 배를 올린 뒤 큰스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디뎌 본다.

도성스님은 1926년 평안남도에서 출생, 1952년 부산 선암사에서 지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다. 불국사, 동화사, 불영사, 상원사, 정암사, 김용사 등지에서 참선수행하셨으며, 미얀마 등 남방의 여러 나라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셨다. 해인사, 대둔사 주자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근본불교의 전법도량인 부산 태종대 공원 안의 태종사에 주석하시면서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들려주고 계신다.

아직 큰스님 곁이 어려워 좌불안석인 우리에게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대화하는 법으로 사자후를 펴신다.

본래 이 부처님 법에 대화하는 법도 다 있어. 손이 딸락 딸락하게 앓아서 말을 하라. 저렇게 멀리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또 한 가지, 앓을 적에 편안하게 앓지 몸을 괴롭히는 짓을 하지 마라. 와 그게 그렇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멀리 앓으면 잘 들리질 않으니깐. 떤데 사람이 들통록 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힘이 들어서 가까이서 하라 하게 돼 있고, 편안하게 하라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 몸이 아픈 데가 있다든가 불편하면 생각이 그릇 그리로 가

게 되어 있어. 우리 그 잘못 아는 사람들이 괴로워도 공부를 한다고. 괴로운데 그 괴로운 걸 관찰하는 것도 제법 했지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게 좋거든. 그럼 두 가지 지켜야지. 자 이리로 오고, 차 한잔 드시고.

수행에 있어서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몸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라요. 한국에서 후학들에게 가르칠 적에 무슨 마음만 다스린다고 저거를 하고 그려나간. 이제 누가 뭐 몸을 망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부처님이 몸을 다스리는 법을 해 놓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안 쓰거든. 자기 몸에 통증이 없도록 하는 게 알아차림이거든. 빠가 부러졌다든가 빠가 상했다든가 그러면, 통증이 알아차림으로 잘 멀질리지지를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통증이 달한 거는 사실이라. 근데 어드른 거는 아주 쉬우냐 그러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괴롭지 않고 없어지는 거는 그 누구든지 더러 그렇게 침아 봤을 께야. 그 몸에서 방귀 나오는 그거를 접잖은 데서는 "텅"하고 펼수가 없잖아. 그럴 때 기관히 참으면 사르르 없어지는 게 내 눈으로 보이거든. 그건 무슨 법이냐, 그 고통을 알아차림으로써 없어지는 법이라. 그걸 모르고도 써 먹은게지. 그 법을 알고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여.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실천하면 되는 법, 실천하고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없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니깐.

우리 불교가 새로운 중흥을 도모하던 시기에 생소한 남방불교를 공부하려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한가지 저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으로 아주 알고 있거든. 뭐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틀린 게 돼 있으면 말을 듣지만, 틀린 거 아닌 거 가지고는 굽히지 않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들은 많이 있는데. 내 눈에 들지 않을 때. 저렇게 하면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게 내 눈에 들지를 않으니까. 이게 무엇이 방법이 틀렸든가 무엇이 틀렸기에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쪽을 가서 보기로 했죠.

참선 수행에 있어서 테리와다 불교와 우리나라 불교의 차이점이 있나요?

거기서는 결제기간은 승려라면 다 가지는 거지. 뭐



선방에 있는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 제일로 허술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면, 강원의 강사라든가 학인들을 禪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제일 손해여. 그 경을 읽어도 그렇고, 예불을 해도 그렇고, 이게 다 선에 속하는 걸로, 화두선단을 선으로 치니깐 그렇게 된거든요. 결국은 일상생활 모든 것이 선 하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 하고 그게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를 이쪽에서 모르는 게 있어.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한 가지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몰라. 예를 들어서 '無' 자라면, '無無無' 계속할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이 들어간 게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가? 그것까지는 괜찮아. 앓아서 내가 계속 회두 '無'만 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절대 안 들어 왔습니다. 그걸 내가 그럼 인정해준다 하자 이거여. 행주좌와 어목동정지에도 항상 한다고? 그럼 걸음 걷는 건 귀신이 걸어주나? 말하는 건 귀신이 해주나? 마음이 안 가고 말이 되며, 마음이 안 가고 걸음이 걸어지느냐. 앓아 있을 적에는 그렇다. 앓아 있을 적에 어디 아프면 그냥 움직거리는 건 귀신이 해주는가. 일념이라는 게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이여. 그러면 본 수행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면. 내가 이거 차를 마신다고 그러면 요거 들어 갈 적에 들어가는 걸 알고, 내가 입에다 갖다 대고 마시면 맛 아는 것을 이제 내가 마음을 지속되게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으니 지속이 된다고 하지요. 알아차림은 지속이거든. 걸음을 걸어도 내가 지금 걸음 걸습니다. 이거 손에 들립니다. 놉니다. 정신나간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간 거 모르잖아.

우리나라 계율의 현주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율은 꼭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되요. 처음에 저거 할 적에 설계를 주고, 신도에게는 5계 주고, 조금 이제 오래 한 사람은 바구, 바구니계를 주게 돼 있지. 그걸 무슨 달달 외워야 되는가. 큰 거 범하지 않을 것만 알



동하는 것, 기만히 있는 것이 다 포교라는 걸로만 생각을 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지적, 양적 향상이 아마 좀 더 될 것 같은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디변화 사회 속에서 스님들의 활동 또한 국한되서 제한적이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면 되는 거지. 오히려 낮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거든. 그저 소소한 것. 이 손톱 눈에 가시 박힌 것 모르는 사람하고 같아. 이 손톱눈에 가시 박힌 게 제일로 아픕니다. 그러면 승려가 어느 계율을 제일로 안 지킨 것이 저거 되느냐 하면, 소소한 계율을 안 지킨데서 일반의 실망을 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어지러운 게 많다고 내가 생각해지지. 지금 그것 때문에 부정한 것도 많고.

스님께서는 오랜 시간 남방불교를 몸소 체험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수행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대승쪽에서는 첫째 추운 지방이라 절식하는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수행에 많이 힘드는 조건이 있어. 왜 그러느냐 이런면. 그 살림에다가 위주를 하고 있으니, 이쪽에서 수행하는 시간이 적고 또 소임자가 여럿이 나는 게 전부 그 먹는 거 때문이라. 그 먹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많이 먹고 아픈 생각이라든가, 그걸 구하는 생각이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몸하고 생각을 많이 받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해결책이냐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먹었으면 다음 때까지 지내느냐 요거를 알아서 먹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밥 새길 게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 결국은 밥 새기는 일만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누구라도 경전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이라든가, 정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그 양이 많이 적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웃이 이게 여러 가지라서 어디 가자면 택배에 한 뭉탱이씩 이거 싣고 냉기느냐고. 또 뭐이냐 이런면. 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어디 가서 저가 보고 싶으면 보도록 공적으로 좀 가지고 놨으면. 내 것을 가지고 싣고 냉겨야 되니.

그 정진이라고 그리는 것이 선방에 앉아 있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포교라고 그리는게 법상에 앉아서 법문하는 것만이 포교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결국은 어디에 가는 것도 포교요, 앉아 있는 것도 포교요. 그 조금이라도 내가 행

아! 그걸 난 찬성을 하는데. 누가 하든지 간에 떳떳이 내 놓고 좀 그거를 해서, 사회봉사하는 걸 난 좋아해요. 이 거를 하면서 이 이름을 감추고 있거든. 근데 그런 이유는 있어. 와 그러니까 좋은 거면 다른 사람이 자꾸 뺏으려고 그러니깐 그렇기는 하지만,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걸 찬성을 해서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예전에 스님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라면. 어디 험악한데 길을 낸다 이렇게 되면, 그 건립을 친다고 그러면 깃발을 띠우고 “아무데 무슨 일 합니다” 이러고 돈을 거둬 가지고 서리 그런 일들도 했거든. 그걸 왜 안 해요. 이 스님네가 결국은 사회 사람들에게 그것도 해야 되지요. 그 뒤 앉아서 공부한다고. 아,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도 제자리 잘 지켜나가면서 저거 하면 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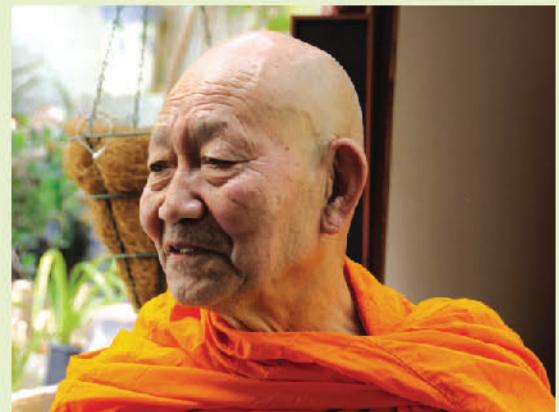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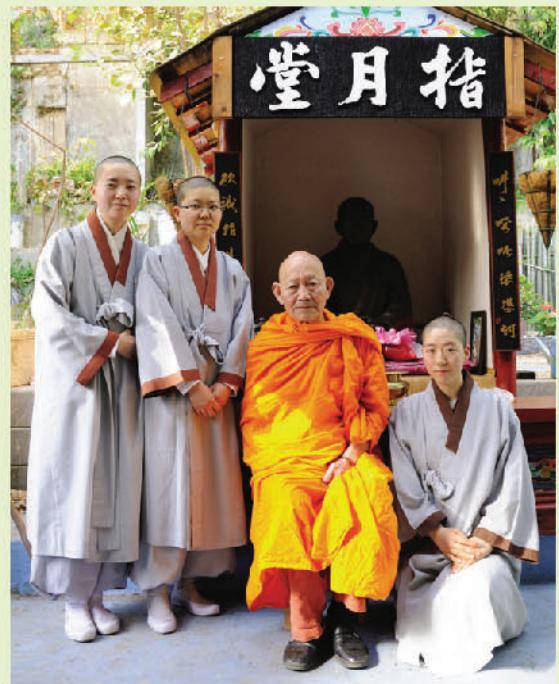
수행에 있어서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등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수행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걸 무엇이든가 할 적에……. 그림들은 그려 봤어? 그림을 그릴 적에 무엇을 먼저 하여야 되느냐면. 내가 저 시계를 그리려면, 벽에 어떻게 걸렸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려야 그걸 그대로 그릴 수 있거든. 저 사람을 내가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서야 제대로 되겠는가 요걸 생각을 하고 떡 눌러야지. 누르는 데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여. 그러면 첫째가 상상을 옳게 해야 돼. 결국은 그 사미타하고 사티가 항상 어울려 있는 거여. 결국은 상상하고 알아차림이 늘 결전해 나가는 게 쉽다는 거여.

자신만의 수행방법을 찾아 기다보면 자칫 자기한테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속지 않고 바른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행이든가, 일이든가, 내가 하는 것이 잘되는 거면 법이라요. 맞지 않는 부속 가지고 차 못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맞는 법은 내 몸만 고달프고 되지를 않는 건데, 그걸 억지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요. 그래서 이스님한테 가서 묻고, 저 스님한테 가서 묻고 하는 게 바른 법이다 이거여. 조금씩이라도 어디 다른 게 있거든. 그전에 어떤 스님이 정진하는 법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실천을 해 봤거든. 그게 지금 태국 단마까야에서 하는 법이여.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야! 태국에 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예전에 우리도 있던 게로구나’ 하는 걸 알았어.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기 가서리 무슨 수행하면은 제가 무슨 처음 법을 안 것같이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거라고. 이 땅이 있고 결국은 이 지수화풍에 저거 되는데는 어떤 식물이든지 조건에만 맞으면 다 나오듯이, 예전에부터 다 있었지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가서 배우라고 그리는 거는 우리 것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지 무시하는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여.

마지막으로 아직 해쳐나가야 할 길이 먼 학인스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번뇌망상을 피우지 말라는 말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진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없어서 번뇌망상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정진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화두하는 것만이 정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항상 번뇌 때문에 안 돼. 내 마음을 내 몸에다가 항상 두고 그 이 마음이 하자고 그러는 거 하고, 몸이 하자고 그러는 걸 서로 융합이 잘되도록 하는 사람이 결국은 건전한 사람이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요. 생각이 가진 거를 몸이 말 안 듣는 사람이 불구자요. 결국은 그 몸에 마음이 없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을 넋 빠진 사람이라고 그려거든. 넋 빠진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며, 몸이 마음 말 안 듣는 사람이 무슨 건전한 사람이라고 하겠소. 아주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두 가지 잘 다스리면 되니까. 몸하고 마음을 결국은 항상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고, 마음이 먼저니깐 마음이 시키는 걸 몸이 정확하게 들어주는 것. 이게 결국은 정진 잘하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바른 사람이거든. 불교가 아주 쉽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큰스님께서는 단번에 잘라주신다. 우리가 군더더기가 더 있을 뿐, 먼저 묻은 거만 떼면 말짱한 얼굴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테라와다를 알도록 만든 분으로 이미 스리랑카에서는 역사적인 인물로 “삼불다사사나 조띠끼”라는 칭호를 받고 계시는 것이 손색이 없다. 과연 ‘이 자리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나을 자리요. 바른 법으로 불교를 중흥시킬 자리이다’라고 하신 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산 증언이리라.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올곧게 수행정진하시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꽃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스며든다. 오랜 세월 꾸준한 수행의 꽃을 피울 시기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기를 바라며 우리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다져본다.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함께하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유진상 / 대한불교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사무과장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 근무할 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 당시 학부모님이 질문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이가 위낙 바빠서 이걸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요. 아마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게 잘못이 커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청소년, 그리고 사찰을 찾지 않거나 찾을 시간이 없는 우리 불자 청소년들의 너무나 바쁜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주말에 더 바쁜 청소년들……. 너무나 바빠서 부모님과 할머니가 청소년들을 대신해 절에서 기도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급격한 변화의 사회라고 합니다. 교육계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창의적 체험활동, 최근에는 주5일 수업제를 내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하니 아마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은 더 바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아빠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학생의 노력이 좌우한다.” 사실 이 이야기를 맞다고 해야 할지 틀렸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보력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도 상위 대학을 못 간 학생이 있는 반

면, 우수한 성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위 대학을 간 학생들이 간혹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산중에 있는 절은 정보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도심권의 절에서도 정보가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지도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이웃종교에 비하여 정보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정책이 변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포교의 방법도 함께 변화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법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에 더 바쁜 어린이·청소년들……. 입시와 공부로 더 바쁜, 스펙과 포트폴리오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

‘왜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청소년법회가 활성화 될까?’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생각과 고민만 했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네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3년 전 알게 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이하 포상제)를 그냥 흘려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청소년관련 직무연수를 갔을 때, 포상제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라미타에 근무하고, 업무에 적응을 하면서 청소년법회에 고민과 관심을 가지기만 했던 저에게 포상제는 어찌

면 청소년들이 절을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해답이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14~25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도록 돋는 국제적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영국에서 시작하였고, 전세계 132개의 정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까지는 임시회원국이고 2012년에는 정회원국이 된다고 합니다. 각 활동영역(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실천하면 동장, 은장, 금장의 포상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포상제가 청소년법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균형적인 청소년성장과 청소년활동의 균등기회 제공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입학사정관제일 것입니다. 포상제의 관계자 말과 원고를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입시 수시 자율선발 반영 가능과 입학사정관제 반영이 높으며 공공 민간기업의 인재 채용시 취업결정요인으로 유도하고자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전략이 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법회의 내용을 포상제와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파라미타가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학부모님으로부터 참가 희망의 전화를 몇 통을 받았습니다. “파라미타의 포상제를 참가하고 싶으시면 학생을 절에 보내십시오.”라고 제가 대답 했



을 때, 그 중에 국제외고 다니는 학생을 사찰법회에 소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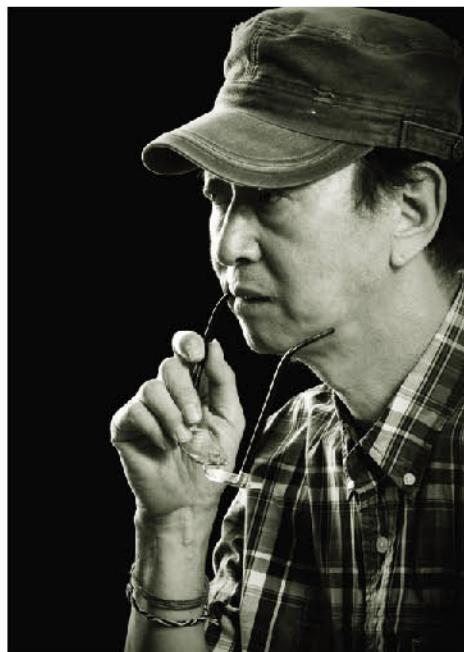
또, 이 포상제를 통하여 청소년법회를 개설하여 활성화 되고 있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울산 황룡사, 여여정사 김해포교당, 서울 금강선원, 포교사단 경북구미지부 등이 있습니다. 울산 황룡사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어린이법회 보조, 자기개발은 디큐멘터리를 통한 토론과 다도체험, 신체단련활동은 명상요가, 탐험활동은 경주유적 탐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포상제를 시작한지 1년이 안되었지만, 지금 3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사찰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법회와 연계하면 법회도 정례화, 체계화되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시를 위하여 바쁜 청소년들이, 입시를 위하여 청소년법회에 스스로 찾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불교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법회와 포교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유성의 잡담

전유성



집에서 놓은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답니다. 지지고 볶고 살았던 7년이지만 이 집에 많은 추억이 있답니다. 새로 이사 오시는 분도 이곳에서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끔 이 집에서 살던 때를 이야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참! 배고프시지요. 맛있는 음식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중국음식은 어느 집이 맛있구요, 곰탕은 어느 집이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세탁소는 길 건너편에 있구요. 그 옆은 솜씨 좋은 아줌마가 머리를 해주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지금쯤 저희들도 새로 이사 간 집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마침 개그콘서트 하는 날이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보세요.” 이런 편지 한 장은 어떨까?

아주 오래전 서울에 살았을 적의 일이다. 한남동에 있는 국동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새로 이사 가는 집 현관문을 열었더니 문 안쪽에 쪽지가 한 장 붙어 있었다. “이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짐 나르다가 배고프시면 여기서 음식을 시켜 드세요.”라며 중국음식점 전화번호와 족발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우리 일행들은 중국음식점 하는 사람이 살던 집 아냐? 어찌구 객쩍은 농담들을 했지만, 이사 첫날부터 기분이 유쾌했다. 자, 이사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실천해 볼 일이 아닌가? “우리는 이 집에서 7년을 살았고 이

저는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신랑축의금 내는 곳에 내지 않습니다. 돈을 들들 말아 손에 쥐고 있다가 신랑을 만나면 따로 불러 손에 살며시 쥐어주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생기는 비자금이다.” 그리고 미소 한방! 친구 딸이 결혼하면 축의금은 아예 내지를 않습니다. 대신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를 가지고 갑니다. 결혼식 사회자가 지금부터 신랑 누구군과 신부 누구 양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신랑이 입장합니다. 신랑이 씩씩하게 주례 앞으로 걸어갈 즈음이면 친구는

곱게 키운 사랑하는 딸과 신부입장 준비를 합니다. 그때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로 “여기 좀 봐!” 하며 사진을 한 장 찰칵! 찍습니다. 결혼식 마칠 때쯤 되면 회미했던 신부 얼굴과 신부 아버지 영상이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신부 아버지에게 사진을 건네줍니다. “야, 이게 너 딸 결혼하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제가 건네준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아버지들이 꽤 있습니다. 가끔 만나면 그 사진을 꺼내서 내게 보여줍니다. “야 이거 네가 찍은 사진인데 가지고 다녀, 고맙다. 가끔 딸 생각나면 꺼내 봐.” “고맙긴 뭘! 축의금 내는 거보다 싸게 먹힌 거야.”

장례식장에 참석합니다. 미리 돈 봉투를 챙기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돈 봉투를 놓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투 한장을 꺼내서 남들이 돈의 액수를 못 알아보게 슬쩍 돌아어서 봉투에 짭싸게 돈을 넣습니다. 그다음 사인펜을 집어 돈 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접수하는 곳에 가서 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분들은 고인과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고인의 자제들과 친분이 있어서, 혹은 거래 관계상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앞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친분이 있는 사람 장례에 갈 때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친분이 있는 사람 장례식에 가면 꼭 편지봉투 안에 조위금과 함께 편지를 한 줄 써넣습니다. “너희 엄마가 만들어 준 오이지 맛있었는데! 이제는 그 맛을 못 보겠구나.” “대학교 때 집에 아무도 없다고 여자애들 데리고 놀러 오라고 해서, 여자애들 데리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문 열어줘서 기겁을 했던 일이 어제 같구나! 아버지, 그때 정말 놀랐어요.” “너네 집에 가본 게 얼마 만이냐? 이제라도 자주 연락 하자.” 등등……. 잘 모르는 사람에겐 편지봉투에

한마디 씁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픕니다.” 사족,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 얼굴을 알아본 옆방 상주가 사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상주가 연예인 봤다고 사인해 달라는 것도 어이가 좀 없었는데 사인해 달라고 가져온 종이가- 종이가 아니고…… 조위금 봉투였습니다. “상주님 정신 차리시게! 사인해 달랄 때가 아닐세!”

몇 번씩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부부끼리 결 구경을 많이 다니십시오. 절에 가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부부끼리 절 구경을 가라는 이유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 먹어 등 가려울 때 “여보 등 좀 긁어줘”,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 “거기가 아니라니까 좀 아래”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부부들은 등이 가려울 때 “여보 나 청도 운문사 쪽에서 운문 댐 방향으로 긁어줘”, “불국사 있는 쪽에서 침성대 방향으로! 아니, 거기는 침성대가 아니고 천마총이잖아.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내려오라구” 명산대찰 구경 많이 다니면 늙어서 등 긁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된다구! 이게 바로 부처님 만나러 다닌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공깃밥 추가 - 인사동에 그림 그리는 스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벌써 만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스님이랑 대학로에 연극구경을 갔습니다. 일반 2만 원, 중·고생 1만 원이라고 매표소에 써 있었습니다. 스님이 만 원 한장을 매표소에 내시는 겁니다. 매표원이 “스님 만 원은 중·고생 만이예요.” “고생하는 중한테 할인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중·고생!” 매표원이 웃으면서 만원에 일반표를 한 장 줬답니다.

종교와 철학

편집부

철학과 종교는 늘 함께 다닌다.

대학 교양강좌에서 늘 빠지지 않는 종교와 철학에서 종교는 '교리를 따르다', 철학은 '배움을 깨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발견된다. '따름'과 '깨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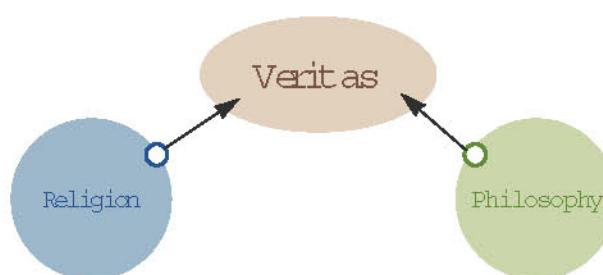
'따르다'는 믿음, '信'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믿는다. 그래서 불교는 신심을, 기독교와 가톨릭은 순종이라는 커다란 명제가 서려 있다. 특히 불교는 信心- 믿는 마음을 통해 기복적 신앙과 연결되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내는 가파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절에서 치성을 드려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불교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선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 단계 발전하여 마음 닦는 수행, 생각을 정리하는 정신수행, 위빠사나, 참선 등과 같은 것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하는 불교의 모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불교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처음의 정의와는 사뭇 다른 양태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부처님의 처음 설하신 말씀을 따른다' 라기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응용불교가 현시대를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으나, 어쨌든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다.

이와 비교되는 철학은 배움을 깨쳐 사고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실을 잘 살기 위해 인간적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의 체계를 갖추어야만 하는가. '철학'이란 범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학자들은 때론 공감이 가기도,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깨침을 말하기도 한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모두 이해할 순 없지만, 선택은 배우는 이의 몫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택함을 받아야 그 깨침이 빛나게 된다. 종교처럼 믿음이 시초가 되지 않는 철학은 순전히 이해와 궁정과 동감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 삶에 대한 깨침이기에 시대에 따라 존중받기도 하고, 때론 사장되기도 하지만 철학이 지향하는 영원한 목표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를 통해 종교와 철학은 만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무언가를 두 가르침은 바라보고 있다.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진리는 연결점을 통해 이어지는 두 분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



우리 모두가 피어날 꽃

글 / 그림 사교과 명현

'꽃은 제가 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좋다'라
하시던 학장스님의 말씀.

종각 앞에 작약 사고, 지금은 장미가 한때
'장미'는 이름일 뿐.

제 할 일을 다하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피어날 꽃.

Ajanta

여 친 / 47회 졸업생

이내 몸 사르이 당신께 이를 수 있다면
천년의 역사 속에 잠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마땅히 끌어안겠나이다

이내 봄 나하여 당신께 돌아갈 수 있다면
천년의 역사 속에 잠긴 그 환희의
시간들을 마땅히 잠재우겠나이나

서 이제 그 고통과 환희 속에
한 가닥 맑고 청정한 연꽃을 피우나니
그것이 당신의 대자비임을 증명하겠나이다. ◉

새벽 단상

정 안 / 사미니파

대중스님보다 한 템포 빠르게 창불 속도가 이어진다
나름 조절하려고 하지만 속도는 좀체 바뀌지 않는다
명법스님의 세 번째 도량석 call 사인이 났다

시간 맞춰 대중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감인지 잠을 뒤척인다
2시 45분 不二門을 열고 정랑으로 향한다
3일 연속 도량석 차례가 되다보니 나름 여유가 생겼나 보다
목련꽃망울이 정겨운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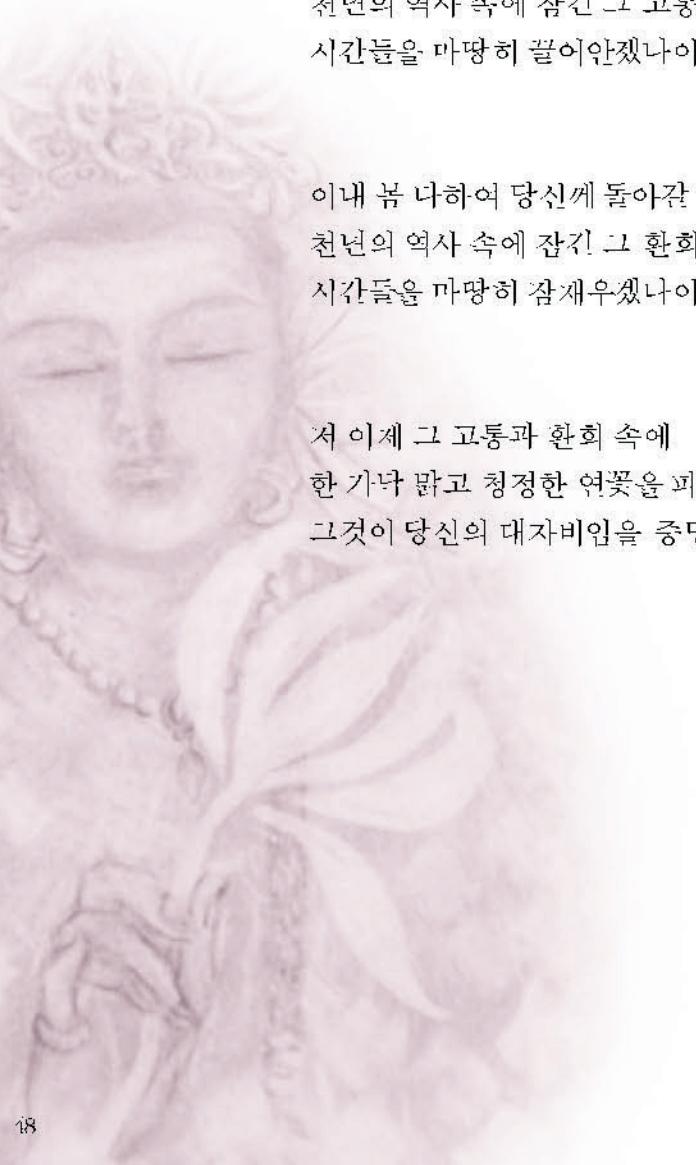
일상의 삶이 밀려들기 전의 호거산은 오롯한 조화로움 속에 충만하다.
한 호흡 길게 들이쉬고 내 쉰다

뜀박질하는 5분대기, 초 다툼의 치열한 치문의 낮시간
무엇이 그토록 마음을 바쁘게 만들었던 것일까…….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머릿속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
가슴속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
동동거리던 일상은 흔적이 없다

3시 10분, 대웅전 앞 도량에서 정확히 도량석 목탁이 내려지자 내쉬어지는 안도의 한숨.
네 번의 도량석 call은 No!
뒤이어 반 스님의 은은한 첫송.
목탁 기다리는 종두대장 스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느긋하다.

원발이 나아감을 알아차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이웃 나라를 향해 쏜살같이 달립을 알아차리고
쓰나미가 있었다지……. 걱정스러운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맑은 경쇠울림이 울리는 대웅전 법당이 향기롭다.
대중스님의 염불 소리에 맞추어 두 음절 창불을 앞서 조율해가며
초발심에서 초발심으로 운문의 4년을 보내리라 불보살님의 은혜를 갚으리라
서원한다. ◉



대중 속 나의 살림살이

무구 / 사집반



입학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 곁에는 작년에 느낄 수 없었던 풍성한 녹음이 도량을 빼곡히
에워싸고 한껏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그만큼 치문은 적응하느라 여념이 없어 정신적 여유를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다. 지금, 원두반이 되어 지난 한 해를 추억해 보니 감회가 새롭다. 열령뚱땅 '치문'이라는 시간
을 보낸 것 같지만 그 속에 나에게는 보배 같은 일상의 작은 깨우침들이 있었기에 치문은 아마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지 않을까 싶다. 그 사건도 작년 이맘때보다 조금 이론 때인 것 같다.

후원소임 중에 '중하채공'이라는 소임을 살 때였다. 중하채공은 후원식당에 오시는 대중스님과 어른스
님들께서 공양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리는 소임이다. 마침 괴일이 필요해서 원주스님께 허락을 받고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오는데 꽤나 무겁고 걸면의 서슬이 펴련 것이 수박으로 써는 예사롭지 않아 보였는
데 별 의심 없이 가져왔다. 수박을 자르는 순간! 뭔가 예감이 이상했다. 너무 심심해서 약간
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달리 의심하지 않았다.

수박이 싱싱한 탓에 팬히 내가 신이 났다. 늘 더위에 고생하는 종두스님들, 설거지도 바쁜 가운데 내 일을
도와주는 반스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나로서는 이 정도면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하
겠다 싶었다. 둘째 기분에 대중스님 뜻을 챙겨놓은 후 반스님들을 위해 고마움을 그릇에 담아 챙겨 준 후,
내심 잘했다고 혼자 뿌듯해하면서 돌아서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신 원주스님, 수박 박스를 보시고는 "스
님, 저 수박 썼어요?" 한마디에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이 삽시간에 들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저 수박,
비로전에 올릴 수박인 거 몰랐어요?" 아! 그 순간에 나는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

으로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싶은 것이 관세음보살님을 저
절로 찾게 됐다.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 원주스님한테 변명이라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
을 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어 더 암담했다. 대중생활에서 실수는 그냥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따
르는데,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원주스님이 져야 한다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원주스
님을 뵙자 일단은 참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스님, 수박…… 어떻게 해요?"
하자 '뭘,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잘라 놓구선, 원상태로 해 놓을 수 있어요?' 하며 살짝 미소를 보이며 가는
것이 아닌가. 아! 그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그 이
상으로 나에게는 그 미소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

생각해보면, 그때 비로전에 불공이 있으니, 수박을 구분해서 가져다 쓰라고 한 원주스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한 데서 실수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그때 지친 반스님에게 힘이 되고자 했던 나의 욕심이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린 것이라. 이 사건을 계기로 헌쪽에 치우치면 다른 한 면을 볼 수 없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잘하려고 한 것이 다른 이에게 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익히지 못했던 '대중'이라는 커다란 틀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방선 계송 중에 「청매선사 십무익송』을 읽다가 눈물이 날뻔했다.

"마음을 들이켜 비추어 보지 않으면 경전을 보아도 이익이 없음이요
정법을 믿지 아니하면 고행을 하여도 이익이 없음이요
원인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를 중하게 여기는 것은 도를 구하여도 이익이 없음이요
마음을 실답게 믿지 아니하면 풍명 변재라도 이익이 없음이요
안으로 살다운 데이 없으면 밖으로 위의를 나누어도 이익이 없음이요
성품이 공한 자리를 사무치지 못하면 좌선하여도 이익이 없음이요
아만을 깨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음이요
남에게 스승 될 데이 부족하면 대중을 모아 살아도 이익이 없음이요
뱃속에 고단만 가득한 사람은 많이 알아도 이익이 없음이요
일생 동안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대중과 함께 살아도 이익이 없음이요"

대중의 뜻에 수순하고 내가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새삼
우리의 본분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 생과 사를 판가름하는 본분사는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본분사가 아닐까?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은, 대중에 살면서 주위를 살피고 정성을 기울일 줄 아는
수행승의 면모를 갖추려 노력 중이다. ●



부시맨은 아이스크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승 이 / 대교과

여기 아무런 외부 문화의 접촉 없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만 산 부시맨이 있다. 그에게 질문을 하니 던져 보자.

“당신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부시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는 가우뚱거릴 뿐, 대답은 없다. 얼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부시맨이 입을 연다.

“그게 뭐죠?”

저 질문에 부시맨이 침묵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아이스크림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부시맨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경험과 인식, 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는 그것을 좋다, 싫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가 만약 아이스크림을 먹은 적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그 경험을 둘이켜 그때의 느낌과 느낌의 판단을 기억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오직 모를 뿐이므로 그에게는 이러한 생각의 진행은 애초에 있을 수 없다. 기억할 것도, 판단할 것도, 대답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는 부시맨에게는 적어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위와 같은 갖가지 생각과 마음작용, 즉 우리가 번뇌라고 부르는 그것이 없다는 말로 대신 할 수 있다.

이 번뇌라는 것은 깊게 말하면 ‘마음을 일으키는 생각의 연쇄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작용은 현실 안에서 우리가 겪는 큰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의 인식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번뇌의 연결고리는 처음의 경험과 인식의 시작만 없다면 애초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어찌면 번뇌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수행자에게 큰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조건 경험하지 말고, 인식하지 말라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결론이 도출되어야 맞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현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하지 않는 일은 육근을 가진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경험을 하고 인식을 하는 일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갖가지 연상 작용은 자극과 반응의 순서적이고도 인과적인 일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 현실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써는 죄가 없다. 단지 ‘내’가 이 세계 속에서 겪는 모든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에 월 틈 없이

흔들리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의 육근, 그리고 이 세계는 월 틈 없이 부딪히며 갖가지 판단과 감정과 생각을 낳는다. 눈을 감았다 뜬 그 짧은 순간에도 내 눈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비추어지고, 그것이 인식되고 판단되고 분별되며, 저장되고 기억되는 것이다. 다른 감각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로부터 ‘좋고 싫은’ 등의 판단이 내려지고, 이에 따른 욕망이 생겨나며, 이를 채우기 위한 집착을 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해결된다면 이 마음은 기쁜 감정에 가득 차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갖가지 피로움에 가득 차워진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욱 기쁘기 위해, 혹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더 집착하게 되는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어 수많은 생각과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우리 행동은 이런 혼란한 작용 속에 정신없이 따라만 간다.

이 일이 거듭되면서 습관이 생기고, 이 습관의 끊임없는 반복에 ‘업’이라는 테두리가 형성된다. 이 테두리를 끝없이 달리며 이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쉬어본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휩쓸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또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한 경계와 부딪혔을 때 그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려는 찰나, 바로 그 순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키워드가 바로 ‘부처님’과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세계와 나’라는 거대한 업의 틀을 초월하는 삶을 보이시며, 다양한 설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이 세계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육바라밀과 팔정도, 37조도풀 등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신다.

현실 경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되 결코 인식이 아닌 일, 결국엔 인식이라는 그 자체도 없는 일, 즉 잠을 자되 자지 않고, 설하되 설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만 결코 사는 것이 아닌 등, ‘무언가를 하되 하지 않는다.’는 모순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나의 경험에서 오는 ‘모든 감각과 인식’을 뛰어넘음으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굴레를 함께 초월하여 미침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 초월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안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의 맛 하나에도 생각과 마음을 갖가지 갈래로 일으키는 존재이다. 이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며 더욱 다양하고 편안하고 풍족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누리고자 한다. 그러나 세상의 경험과 감각을 쫓아가는 일이 번뇌의 꽃을 피울 종자를 심고 있는 것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자문해 볼 일이다. 과연 이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일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지 말이다.

‘나와 이 현실’의 테두리를 뛰어넘을 힘이 있다면 무엇이든 마음껏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라. 하지만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면 수행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조금 덜 빠르게, 덜 풍족하게, 덜 편하게 사는 삶을 추천한다. 소박해 보이는 삶이 수행의 기반이 되는 이유는 나와 이 현실을 조금이나마 분리시켜 욕망의 흐름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누더기 옷과 나물 밥상이 초라하고 추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지금도 내가 내 업의 테두리를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의 부시맨은 적어도 아이스크림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고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당신은 인정할 수 있을까?



▲ 관자재병원 기공식



▲ 제12차 세계여성불자대회



▲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여름철 결계포살



▲ 감자 캐기 대중 출력

운·문·소·식

- 5월 21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5월 26일 요가를 시작으로 염불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5월 28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뮤지컬 '원효'를 어른 스님과 대중 스님이 관람하였습니다.
- 5월 29일 능행 스님의 관자재병원 기공식에 학장 스님의 격려사가 있었고, 어른스님과 사집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6월 4일~5일 제5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해처럼 빛나는 행복의 나라'라는 주제로 열려 교회부 스님 34명이 1박 2일간 다녀왔습니다.
- 6월 6일 단오날을 맞아 대중 스님들의 산행이 있었습니다.
- 6월 12일~18일 '제12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학장 스님과 사서 스님, 명법 강사 스님, 한문불전대학원 스님, 을원생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6월 17일 청도소방서에서 주관한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 6월 22일 사단법인 동련이 주관한 '제3회 승가대학 어린이포교 교육'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4일 학인 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7일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막식'에 어른 스님과 한문불전대학원 스님, 을원생 스님, 대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7월 1일 여름철 결계포살이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7월 6일 감자 캐기 대중 출력이 있었습니다.
- 7월 7일 운문유치원(원장/44회 졸업생 도진스님)의 '운문사 여름캠프'가 있었습니다.
- 7월 8일 여름철 첫 自恋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2일~24일 217명의 어린이와 함께 '꽃보다 고운 우리는 천진불'이라는 주제로 제33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열릴 예정입니다.
- 7월 24일 여름철 두 번째 自恋 및 여름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7월 25일 36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황수진 불자님 · 이기태 불자님 · 배종옥 불자님 · 윤금자 불자님 · 노경희 불자님
- 성분숙 불자님 · 류재창 불자님 · 우충시 불자님 · 이부호 불자님 · 윤상태 불자님
- 권혁창 불자님 · 전유성 불자님 · 신수언 불자님 · 최경아 불자님 · 이화진 불자님
- 김성은 불자님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등 불 |



딜그루시 / etching. 15x18cm / 사미나고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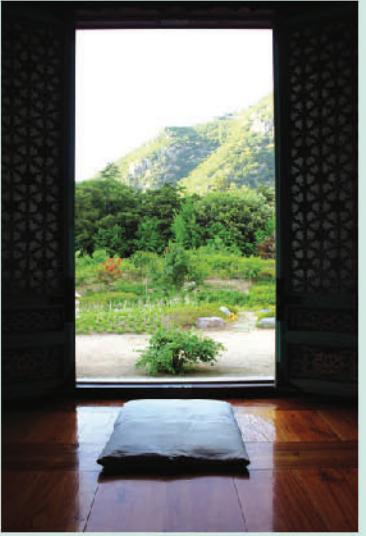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늘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 법정스님 '내리고 떠나기' 中에서 -

| 그림기법 | etching. 동판화 기법으로 판 위에 방수액을 바르고 방수액이 바르면 그 위에 담글로 이미지를 그리거나 칠한다. 시간 차이를 두어서 부식에 깊이를 만든다. 부식이 끝나면 부식이 뒤 흑지아로 판화 잉크를 씌어넣어서 이미지를 씹어내는 판화기법이다.



노력하는 마음보다 더 큰 소중은 없다.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어름호·통권 제 117호·2011년 7월 15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진광·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 편집장·장주·편집위원·덕해, 법수, 도율, 법성, 도이, 선문, 원사, 원담, 덕우, 감응 / 사진·편집부 / 삽화·승이, 선유
편집디자인· 미디어 (02)2285-3366